발 간 등 록 번 호 11-1543000-002043-10



제 출 문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귀하

본 보고서를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의 최종보고서로 제출합니다.

2018년 12월

연구기관명: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책임자: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유 은 영 연 구 원

연구의 목적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농어업인삶의질법」 제46조에 의거하여 삶의 질 향상 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었다.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업인 삶의 질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그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있다.

이 연구에서는 전문지원기관의 조사 연구 활동의 일환으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자 했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 고 새로운 정책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내용 및 방법

첫째,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점검하였다.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이슈에 맞추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둘째,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셋째,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과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 본을 구성하기 시작한 2014년 조사 결과부터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 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2014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 주 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정주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농림어업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주관적 으로 인지하는 정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확인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

전반적인 삶에 대해 도시민보다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5년 전 조사 결과에선 도시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가 역전되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해당 여건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 보건·복지 부문은 7대 정책 부문 중 도·농간의 격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 그격차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도 작년에 비해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항목의 도·농 격차가클 뿐만 아니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여건을 개선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학생교육과 관련된 항목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특히 학부모 연령인 20~30대의 만족도는 4년 사이에 하락하기도 했다. 농어촌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특히 농어촌 지역의학부모층의 교육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방과 후 수업 확대, 통학 개선, 학교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평생 학습 기회'였다. 특히 20~30대와 귀농·귀촌인의 해당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귀농·귀촌인과 젊은 세대는 직업 교육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받게 되는 평생교

육은 경제활동과도 직결되는 만큼, 교육 이수 후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을 열악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20~30대, 귀농·귀촌인, 농림어업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그룹은 농어촌 지역에 소득 기회가 현저히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종사자들은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동시에, 농업인 외의 농어촌 주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위해 노력해야 한다.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농어촌을 삶의 터전을 삼고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정주생활기반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항목만이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이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불편해서'로 조사되었다. 대중교통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다.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여건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다. 도시에 비해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선 주민 주도의 문화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촌 주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문화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차 례

제1장 서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제2장 정주 만족도 조사 개편 방안
1. 조사 항목의 점검 및 개편 목적 ···································
제3장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 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1 3.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2 4.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4
제4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1. 분석 개요 ···································
제5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7
2. 시사점

부록
1.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 농어촌 주민 조사 결과 보정84
2.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개편 내용90
3. 2014년~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92
4. 2014년과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97
5.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정주 만족도 분석 결과99
6.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101
참고문헌110

표 차례

제2장	
<亞 2-	1> 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 丑 2-2	2>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개편 8
제3장	
<班 3-	1> 조사 방법 및 개요
<班 3-2	2>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 13
<班 3-3	3>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수14
<班 3-4	4>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비율 14
<班 3-	5>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수 15
<丑 3-	6>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비율 …15
<丑 3-	7>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보정 가중치 16
<班 3-	8>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농어촌 지역 주민 표본 변화16
< 班 3-9	9>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17
<亞 3-	10>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18
< 丑 3-	11> 도시·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20
<亞 3-	12> 도시 및 농어촌의 주관적 웰빙 조사 평균 점수22
<亞 3-	13> 2018년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23
<亞 3-	14>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25
< 丑 3-	15> 2017년, 2018년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27
<亞 3-	16> 2017년, 2018년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29
<亞 3-	17> 2017년, 2018년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丑	3-18>	2017년, 2018년 경제활농·일자리 무분 세무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丑	3-19>	2017년, 2018년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34
<丑	3-20>	2017년, 2018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35
<丑	3-21>	2017년, 2018년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36
<丑	3-22>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39
<班	3-23>	2012년~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40
<丑	3-24>	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43
<丑	3-25>	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43
ᆈᄼᅑᅛ		
제4장		
<丑	4-1>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47
<班	4-2>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응답 비율 변화 47
<班	4-3>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평균 점수의 변화 50
<班	4-4>	2014년, 2018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53
<班	4-5>	$2014년$,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비교 \cdots 54
<丑	4-6>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정주 만족도 5년간 증감 및
		인구통계적 특성별 격차72

그림 차례

제	3징	
---	----	--

	<그림	3-1>	2018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20
	<그림	3-2>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 21
	<그림	3-3>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 · 23
	<그림	3-4>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26
	<그림	3-5>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28
	<그림	3-6>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0
	<그림	3-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32
	<그림	3-8>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33
	<그림	3-9>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35
	<그림	3-10>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36
	<그림	3-11>	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41
	<그림	3-12>	이주 의향 조사 결과42
Σ-	4장		
	<그림	4-1>	농어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 변화 추이 … 49
	<그림	4-2>	2014년, 2018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53
	<그림	4-3>	5년간 크게 개선된 정주 여건 세부 항목56
	<그림	4-4>	보건·복지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57
	<그림	4-5>	교육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61
	<그림	4-6>	정주생활기반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62
	<그림	4-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64

66	분석	성별	특	-계조	인구통	부문	·여가	문화	4-8>	<그림	
68	분석	성별	특	계조	인구등	부문	·경관	환경	4-9>	<그림	
69		분석	별	특성	통계적	인구	부문	안전	4-10>	<그림	

제 1 장

서 론

1. 연구 배경과 목적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개발위원회(이하, '삶의 질 향상 위원 회'라고 줄임)는 제3차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기본계획(이하,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이라고 줄임)에 따라 2015년부터 15개 부처, 3개 청의 중앙행정기관, 14개 시·도가 시행계획을 수립하고, 관련된 184개의 사업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다.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 지역 개발 촉진에 관한 특별법」(이하, '농어업인삶의질법'이라고 줄임)에 따라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을 총괄하는 중앙행정기관들의 협의기구다.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에 따른 정책 및 사업은 2015년부터 2019년까지 5년에 걸쳐 시행된다. 내년에는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한 작업이 시작되며, 2020년부터 본격적으로 새로운 삶의 질 정책이 도입될 예정이다.
- 「농어업인삶의질법」제46조에 의거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삶의 질 향

상 위원회의 전문지원기관으로 지정되어,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추 진하는 데 필요한 다양한 연구 활동을 수행하고 있다.

- 「농어업인삶의질법」제44조 제5항에 의거하여 전문지원기관은 농어촌 서비스기준 이행 수준을 점검 및 분석해야 하며, 동법 제45조 제2항에 의거하여 삶의 질 기본 계획의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평가하는 등의 업 무를 수행해야 한다.
- 이와 함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고 관련 연구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그 변화 양상을 지속적으로 조사 및 분석하고 있다.
- 이 연구에서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분석하였다. 이 연구는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파악하고, 분석 내용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을 효과적으로 추진하는 데 필요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자 수행되었다.
 -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인 삶의 질 만족도를 측정하는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2012년부터 매년 진행되고 있다.
 -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각각 10개, 20개의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 구성하여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4년부터는 지역별 층화 추출 방법으로 표본을 구성하여,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할 수 있 는 조사를 진행하였다.
 - 2018년 조사에서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비교하여 농어 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또한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의 추진 실태를 점검하고자 했다.
 - 이와 더불어, 지역 간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할 수 있는 정책 지원 사업을 발굴하는 데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하자고 했다.

2. 연구 내용과 방법

2.1. 연구의 주요 내용과 방법

□ 정주 만족도 조사 개편

-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기에 앞서, 기존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을 점검하였다.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이슈에 맞추어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제대로 파악하고자 일부 문항을 수정하거나 추가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를 더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기존의 10점(1~10점) 척도에서 11점(0~10점) 척도로 변경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비교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비교 분석 하여 농어촌 주민 삶의 질의 현 위치를 파악하고자 하였다.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 7대 정책 부문별(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조사 결과를 비교하였다.
 - 이 외에 7대 정책 부문에 대한 중요도, 이주의향 등에 대한 조사 결과를 분석하고,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지수도 도출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 그동안 축적된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

석과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을 실시하였다.

-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기 시작한 2014년 조사 결과부터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다. 측정 척도가 11점(0~10점)척도로 동일한 2014년과 2018년도의 결과를 중점적으로 비교 분석하였고, 특히 도·농간의 격차가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중심으로 분석하였다.
- 2014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로 정주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농림어업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주관적으로 인지하는 정주 만족도에 차이가 있는 확인하였다.

2.2. 조사 결과 분석 방법

- □ 농어촌 주민의 조사 표본이 실제 농어촌 지역 거주민을 대표할 수 있도록 표본 보정 실시
- 조사 방법(온라인 조사 및 전화조사)의 한계로 실제 조사된 농어촌 주민의 거주 지역별 분포와 연령별 비율 등이 모집단과 달랐다. 이를 보정하고자 17개 읍·면 인구 모집단의 연령 비율을 가지고, 조사된 표본에 가중치를 적 용하여 농어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표본을 도출하였다.
 - 2018년 조사 표본과 함께, 모집단과 실제 조사된 표본 사이에 차이가 큰 2017년 조사 표본에도 가중치를 적용하여 정주 만족도 결과를 재산출하였다. 이 보고서에 언급된 2017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적용하여 재산출한 결과로, 작년 보고서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

^{1 2017}년 조사 표본에 대한 가중치 적용 방식과 이에 따라 재산출한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는 <부록1> 참고

□ 2014년부터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 재정리

- 2018년 조사와 같이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를 진행한 것은 2014년 조사부터이다². 이 보고서에서는 2014년부터 5년간 이루어진 조사 결과 수치를 일관된 산출 방식으로 재정리하고자 하였다.
 - 유효숫자의 원칙에 적합한 방식으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표기하였다. 소수점 표기 방식의 변화에 따라 라운드 에러(round error)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수치를 재산출하였다.
 - 여러 세부 항목들에 대한 평균을 구할 때는, 먼저 세부 항목별로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결과를 산출하고 나서, 해당 수치들에 다시 라운드 함수를 사용하여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평균점수를 산출하였다.
- 이 보고서에서 제시하고 있는 정주 만족도 결과 수치는 위와 같은 방식으로 산출한 결과이다.
 - 해당 방식으로 산출한 2014년부터 2018년까지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 주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를 <부록 3>에 종합하여 정리하였다.

^{2 2014}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는 20개 행정리 마을 패널 대상의 조사(농어촌 주민 표본 679명)와,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의 도시 및 농어촌 주민 대상의 조사(농어촌 주민 표본 1,168명)를 함께 실시하였다. 이 보고서의 2014년도 수치는 지역별 층화 추출 방식으로 조사(농어촌 주민 표본 1,168명)된 결과이다. 이에 따라, 2014년 조사 결과를 언급할 때 마을 패널 대상의 조사 결과를 활용했던 이전 보고서들과 수치가 다를 수 있다.

제 2 장

정주 만족도 조사 개편 방안

1. 조사 항목의 점검 및 개편 목적

○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은 <표 2-1>과 같이 크게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분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의향, 응답자 특성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표 2-1〉도시와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거바저이 사이 마지드	○ 포괄적 의미의 삶의 만족도(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거주하는 사군 및 마을의 발전 가능성 인식	○ 주관적 웰빙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7대 부문별 중요도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 7대 부문별로 3~5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사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1	그 이유				
	○ 거주 지역	○ 거주 기간				
	○ 성별, 연령, 학력, 직업, 건강 상태	○ 가구 소득				
	○ 자가용 차량 소유 유무	○ 가족 구성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도	○ 주택 형태, 주택 점유 형태				
	○ 가정 생활에 대한 만족도					
	○ 귀농·귀촌 여부					
	○ 마을 일(행사나 모임)에 대한 참여도					

- 2012년부터 진행해왔던 정주 만족도 조사가 7년차에 접어든 시점에서 설문 문항을 전반적으로 점검하였다. 현 시점의 농어촌의 환경과, 최근 중시되고 있는 정책적 이슈를 정주 만족도 조사에 담을 수 있도록 개편하였다.
 - 2012년부터 진행되어 왔던 정주 만족도 조사는 기존의 조사 항목을 유지 하면서, 매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를 확인하는 데 필요한 문항을 일부 추가하는 방식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 그러나 그동안 농어촌의 사회적·문화적 환경이 변화하였고,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관련된 정책의 초점도 변화하고 있다. 정주 만족도 조사가 이러한 농어촌 지역의 변화된 환경 속에서의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여건을 확인할 수 있도록, 조사 항목을 개편해야 한다고 판단하였다.
- 농어촌 삶의 질과 관련된 정책 이슈와 삶의 질 측정과 관련된 타 조사의 세부 문항을 참고자료로 하여, 정주 만족도 조사의 세부문항을 점검하였다.
 - 정책 이슈와 관련된 참고자료는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5개년 계획과 국가균형발전 5개년 계획, 삶의 질 중점추진과제 설문조사 결과³ 등을 활 용하였다(<부록 2> 참고).
 - 참고자료로 활용한 타 조사는 통계청의 국민삶의질지표 세부문항, 농촌 진흥청의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세부문항 등이다(<부록 2> 참고).
- 조사의 척도를 기존의 10점 척도(1~10점)에서 11점 척도(0~10점)로 변경하 였다. 척도를 세분화하여 만족도를 좀 더 세밀하게 측정하고자 했다.

³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삶의질정책연구센터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로, 정부에서 역점적으로 추진할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과제를 발굴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2018년 7월 3일부터 10일까지 한 주간, 관련 전문가 100명, 농어촌 주민 201명을 대상으로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현 시점에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과제가 무엇인지 답하게 하는 조사를 실시하였다.

2. 조사항목 개편 내용

○ 2017년의 정주 만족도 조사와 비교하였을 때, 2018년 조사에서 개편된 부분 은 <표 2-2>와 같다.

〈표 2-2〉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개편

구 분	개편 내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문항 추가: 1문항 -[마을 발전 정도]우리 마을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	
삶의 질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2017년과 동일)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문구 수정: 7문항 ○ 문항 추가: 6문항 -[보건·복지/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함 -[교육/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 -[경제활동·일자리/ 일자리 지원]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경제활동·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 활동 지원, 일을 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문화·여가/ 문화 공동체 활동]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하 -[안전/ 안전시설 및 설비]우범지역 및 사고위험지역에 CCTV 등의 안전 시설과 설비가 함 ○ 기존 문항을 세분화하여 수정: 2문항 -[교육/ 학교 교육 여건] (2017년 문항)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하 → (2018년)지역 학교(초/중/고)의 ()에 대해 만족한다. ① 교사 전문성(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② 학생들의 성취수준 ③ 학교 시설 ④ 통학의 편리성 -[정주생활기반/ 주택상태] (2017년 문항)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2018년)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① 규모가 적당하다.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③ 지봉,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입다. 당 및 훈련) 프로그램 등 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 하고 있다. 잘 구축 되어 있다.
이주 의향	(2017년과 동일)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 문항 추가: 1문항 -[귀농·귀촌여부]귀농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촌하셨습니까?	

- <표 2-2>와 같이, 2017년 조사 내용 구성의 큰 틀은 유지하면서, 세부 항목들을 점검하고 기존 설문 문항을 수정하거나 새로운 문항을 추가하였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와 관련된 항목 중에서는 '마을 발전 정도'를 확인할 수 있는 항목인 '우리 마을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를 추가하였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부분 에서 세부 항목을 다음과 같이 수정 및 추가하였다.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의미가 불명확한 2개의 항목을 수정하였고, 농어촌 지역의 변화된 정책적 환경을 고려하여 1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에선 2개 항목을 수정하였다. 또한 기존에는 '학교 교육 여건'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을 받을 수 있다'의 한 문항으로 조사하였는데, 공교육 여건의 다양한 측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고자 해당 항목을 4개의 문항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응답자에게 '교사 전문성', '학생들의 성취 수준', '학교 시설', '통학의 편리성'에 대한 만족도를 각각 체크하도록 하고, 이 4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학교 교육 여건' 항목의 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 * 기존에 별개의 항목으로 조사가 이루어졌던 '학교 시설 여건'과 '통학 여건'에 대한 항목은 '학교 교육 여건' 항목에 포함되었기 때문에, 2018년 세부 항목에서 삭제하였다.
 - 정주 생활 기반 부문에서도, 기존에 '주택 상태' 항목을 확인하기 위해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의 한 문항으로 조사했던 것을, 4개 의 문항으로 세분화하였다. 즉, 응답자에게 '규모의 적절성', '설비', '낙 후도', '내구성'에 대한 만족도를 체크하도록 하고, 이 4개 문항의 평균 점수를 '주택 상태'항목의 만족도 점수로 사용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선, 2개 항목의 문장을 수정하였고, 변화된 정책 환경을 고려하여 2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 * '농외소득'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 항목은 기존엔 도시민에게도 동일하게 조사가 진행되었다. 그러나 농업 외에 농촌자원을 활용한 경제활동 여건에 대한 만족도를 확인하는 문항이기 때문에, 올해 조사에선 농어촌 주민에게만 조사를 진행하였다.
- 문화·여가 부문에선 1개 항목의 문장을 수정하였고, 1개의 항목을 추가 하였다.
- 안전 부문에선 1개의 항목을 추가하였다.
-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부분에선 기존의 '귀농·귀촌 여부'를 확인하는 문항에 더해, 귀농인인지 귀촌인인지 확인할 수 있는 1개의 문항을 추가하였다.
- 조사항목 개편 내용의 자세한 내용을 <부록 2>를 통해 제시하였다.

제 3 장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1. 조사 개요

1.1 조사 방법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을 대상으로 방문 면접 조사(Face-to-Face Interview)와 온라인 조사(Online-survey)를 함께 진행하였다. 조사 전문업체에 위탁하여 진행하였다⁴.
 - 2018년 10월 15일부터 11월 9일까지 4주간 전국 17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를 대상으로 조사했다.
- 「농어촌 정비법」에 근거하여 동 지역을 도시로, 읍·면 지역을 농어촌으로 구분하고 표본을 추출했다.
 - 도시 지역은 700명을 할당하고, 농어촌 지역은 2,000명을 할당할 것을 계

⁴ 조사 전문기관인 리서치앤리서치에 위탁하여 설문조사를 진행하였다.

획하고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을 진행했다.

- 최종 표본 수 3,152명 중 동 지역 주민 응답자는 949명, 읍·면 지역 주민 응답자는 2,203명이었다.
-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최대 허용 표본오차 ±1.75%p 이다.

〈표 3-1〉조사 방법 및 개요

조사 대상	→ 전국 17개 광역시·도 거주 만 19세 이상 성인 남녀
표 본 수	→ · · · · · · · · · · · · · · · · · · ·
표본 오차	● 95% 신뢰수준에서 최대허용 표본오차 ±1.75% Point ■ 무한 모집단 기준
조사 방법	● 방문 면접 조사 (Face-to-Face Interview) ■ 온라인 조사 (Online Survey)
표본 추출	→ 동 지역, 읍·면 지역별 할당 표본 추출(Quota Sampling)
조사 기간	→ 2018년 10월 15일 ~ 11월 09일

- 조사 항목은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이주의향 등이다<표 3-2>5.
 - 전년도와 비교하면,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부문에서 1개 항목이 추가되었고,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세부 항목은 6개 항목을 추가하고, 2개 항목은 질문을 세분화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수정하었다.
 - 각 만족도 항목에 대해, 만족 정도에 따라 11점 척도(0~10점)로 답하게 하였다.

^{5 &}lt;부록 6>의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참조

〈표 3-2〉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주요 항목

구 분	세부 항목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 포괄적 의미의 삶의 만족도(행복감) ○ 거주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 거주하는 시군 및 마을의 발전 정도 및 가능성 인식 ○ 주관적 웰빙 지수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 중요도에 따른 1~3순위 ※ 7대 부문: 3기 정책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별로 3~7개 세부 여건에 대한 만족도 ※ 7대 부문: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3기 정책의 7대 부문 (보건복지, 교육, 정주생활기반, 경제활동일자리, 문화여가, 환경·경관, 안전)						
이주 의향	○ 이주 의향 ○ 이사하고자 하는 지역 및 그 이유						

1.2. 농어촌 주민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출 및 부여

- 이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방법인 방문면접 조사와 온라인 조사의 한계 때문에, 농어촌 지역 주민의 모집단과 실제 조사된 농어촌 주민 표본 간에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모집단과 표본 간의 차이를 줄여 농어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가중치를 산출 및 적용하여 표본을 보정하였다.
 -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의 농어촌 주민 최종 조사 결과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정한 결과이다.
 - *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에서도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여, 표본을 보정하고 조사 결과를 수정하였다.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의 표본 보정 방법은 <부록 1>에 정리 하였다.6

⁶ 이 보고서에서 언급된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수치는 가중치를 부여하여 보 정된 결과로, 작년 보고서의 수치와 다를 수 있다.

○ 본 연구에서 조사된 14개 시·도별 읍·면 인구의 연령대 비율을,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부 인구통계를 통해 도출한 조사 시점의 14개 시·도별 읍·면 인구 모집단의 연령대 비율로 보정하고자, 다음과 같이 가중치를 산출 및 적용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동 지역) 만 있는 서울, 광주,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령대별 모집단(<표 3-3>)과 전체 농어촌 주민 수 대비 비율 (<표 3-4>)을 산정하였다.

〈표 3-3〉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수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17,439	26,726	29,110	22,031	34,050	129,356
대구	32,373	43,431	40,700	39,251	42,720	198,475
인천	9,476	7,797	10,857	16,699	35,108	79,937
울산	29,745	28,296	39,252	39,786	43,367	180,446
세종	13,132	11,241	13,791	15,855	26,097	80,116
경기	277,395	288,355	353,250	369,210	506,807	1,795,017
강원	74,888	61,792	82,019	114,806	204,569	538,074
충북	73,002	77,228	89,660	112,530	196,684	549,104
충남	123,397	129,212	162,691	191,327	365,036	971,663
전북	53,437	47,410	68,629	97,109	222,379	488,964
전남	111,449	100,732	140,992	184,088	390,549	927,810
경북	131,556	127,088	167,383	229,051	451,757	1,106,835
경남	129,964	144,593	177,182	208,786	369,127	1,029,652
제주	21,716	21,445	31,178	33,175	51,903	159,417
합계	1,098,969	1,115,346	1,406,694	1,673,704	2,940,153	8,234,866

〈표 3-4〉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비율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0.21%	0.32%	0.35%	0.35%	0.27%	0.41%	1.57%
대구	0.39%	0.53%	0.49%	0.48%	0.52%	2.41%	
인천	0.12%	0.09%	0.13%	0.20%	0.43%	0.97%	
울산	0.36%	0.34%	0.48%	0.48%	0.53%	2.19%	
세종	0.16%	0.14%	0.17%	0.19%	0.32%	0.97%	
경기	3.37%	3.50%	4.29%	4.29% 4.48%		21.80%	
강원	0.91%	0.75%	1.00%	1.39%	2.48%	6.53%	
충북	0.89%	0.94%	1.09%	1.37%	2.39%	6.67%	
충남	1.50%	1.57%	1.98%	2.32%	4.43%	11.80%	
전북	0.65%	0.58%	0.83%	1.18%	2.70%	5.94%	
전남	1.35%	1.22%	1.71%	2.24%	4.74%	11.27%	
경북	1.60%	1.54%	2.03%	2.78%	5.49%	13.44%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경남	1.58%	1.76%	2.15%	2.54%	4.48%	12.50%
제주	0.26%	0.26%	0.38%	0.40%	0.63%	1.94%
합계	13.35%	13.54%	17.08%	20.32%	35.70%	100.00%

- 두 번째로, 본 연구에서 조사된 14개 시·도의 연령대별 사례수(<표 3-5>) 와 비율(<표 3-6>)을 산정하여 모집단과 비교하였다.

〈표 3-5〉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수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2	18	11	5	1	37
대구	15	26	20	16	6	83
인천	2	2	3	1	1	9
울산	14	16	24	2	1	57
세종	2	8	7	1	1	19
 경기	14	51	44	26	24	159
강원	8	27	35	37	55	162
충북	24	58	51	41	60	234
충남	31	64	55	53	39	242
 전북	13	36	29	31	48	157
 전남	17	67	56	55	76	271
 경북	32	83	63	58	83	319
경남	37	137	88	83	82	427
제주	7	7	8	3	2	27
합계	218	600	494	412	479	2,203

〈표 3-6〉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비율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0.09%	0.82%	0.50%	0.23%	0.05%	1.68%
대구	0.68%	1.18%	0.91%	0.73%	0.27%	3.77%
인천	0.09%	0.09%	0.14%	0.05%	0.05%	0.41%
울산	0.64%	0.73%	1.09%	0.09%	0.05%	2.59%
세종	0.09%	0.36%	0.32%	0.05%	0.05%	0.86%
경기	0.64%	2.32%	2.00%	1.18%	1.09%	7.22%
강원	0.36%	1.23%	1.59%	1.68%	2.50%	7.35%
충북	1.09%	2.63%	2.32%	1.86%	2.72%	10.62%
충남	1.41%	2.91%	2.50%	2.41%	1.77%	10.99%
전북	0.59%	1.63%	1.32%	1.41%	2.18%	7.13%
전남	0.77%	3.04%	2.54%	2.50%	3.45%	12.30%
경북	1.45%	3.77%	2.86%	2.63%	3.77%	14.48%
경남	1.68%	6.22%	3.99%	3.77%	3.72%	19.38%
제주	0.32%	0.32%	0.36%	0.14%	0.09%	1.23%
합계	9.90%	27.24%	22.42%	18.70%	21.74%	100.00%

- 세 번째로, 실제 조사된 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따를 수 있도록 보정 가중 치를 <표 3-7>과 같이 산출하였다.
- * 가중치 산출식: 가중치 = 조사 표본의 비율 / 모집단 비율

〈표 3-7〉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보정 가중치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2.333	0.397	0.708	1.179	9.109	
대구	0.577	0.447	0.544	0.656	1.905	. –
인천	1.268	1.043	0.968	4.467	9.392	. –
울산	0.568	0.473	0.438	5.322	11.602	. –
세종	1.757	0.376	0.527	4.242	6.981	· -
경기	5.301	1.513	2.148	3.799	5.649	· -
강원	2.504	0.612	0.627	0.830	0.995	. –
충북	0.814	0.356	0.470	0.734	0.877	. –
충남	1.065	0.540	0.791	0.966	2.504	-
전북	1.100	0.352	0.633	0.838	1.239	. –
전남	1.754	0.402	0.674	0.895	1.375	· -
경북	1.100	0.410	0.711	1.056	1.456	. -
경남	0.940	0.282	0.539	0.673	1.204	. –
제주	0.830	0.820	1.043	2.958	6.943	. –
합계		-	-	_	_	1.000

- 마지막으로, 산출된 가중치를 응답 값에 부여하여 2018년도 정주 만족도 조사의 농어촌 지역 주민 최종 표본을 산출하였다. 가중치를 부여하기 전과 후의 표본 변화는 <표 3-8>과 같다.

〈표 3-8〉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농어촌 지역 주민 표본 변화

		사리	계수	비율(%)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전체	2,203	2,203	100.0	100.0	
	인천/경기	168	502	7.6%	22.8%	
	대전/충청	495	428	22.5%	19.4%	
거주 지역	광주/전라	428	379	19.4%	17.2%	
기구 시력	대구/경북	402	349	18.2%	15.9%	
	부산/울산/경남	521	358	23.6%	16.3%	
	강원/제주	189	187	8.6%	8.5%	
	19~29세	218	294	9.9%	13.3%	
	30대	600	298	27.2%	13.5%	
연령대	40대	494	37.6	22.4%	17.1%	
	50대	412	448	18.7%	20.3%	
	60대 이상	479	787	21.7%	35.7%	

1.3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

- 전체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9>과 같다.
 - 총 3,152명의 응답자 중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1.9%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30.5%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1.4%이고 여성이 48.6%로 비슷했다.

〈표 3-9〉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3,152	100.0%		전체	3,152	100.0%
	서울	266	8.4%		무학	63	2.0%
	인천·경기	691	21.9%		초졸·중졸	387	12.3%
71.7	대전·충청	551	17.5%	교육	고졸	800	25.4%
	광주·전라	482	15.3%	수준	대졸	1,708	54.2%
\\\\\\\\\\\\\\\\\\\\\\\\\\\\\\\\\\\\\\	대구·경북	452	14.3%		しんり しいけ	194	6.2%
	부산·울산·경남	478	15.2%		대약권 이경	194	0.2%
	전체 서울 인천·경기 대전·충청 광주·전라 대구·경북	232	7.3%	7171	좋음	1,312	41.6%
서벼	남성	1,619	51.4%		보통	1,271	40.3%
성필	여성	1,533	48.6%	9.41	나쁨	569	18.1%
	19~29세	423	13.4%	기다 내하	보통 1, 불만족 3	1,552	49.2%
[30대	541	17.2%		보통	1,264	40.1%
연령대	40대	624	19.8%] 건축포	불만족	336	10.6%
	50대	603	19.1%		독신 가구	402	12.8%
	60세 이상	961	30.5%		1세대 가구	850	27.0%
	10년 미만	1,179	37.5%	가족	2세대 가구	1,667	52.9%
기조	10~19년	663	21.1%	구성	3세대 가구	157	5.0%
	20~29년	468	14.9%		조손 가구	10	0.3%
7112	30~39년	311	9.9%		기타	66	2.1%
	40년 이상	525	16.7%	5.3% 수준 대출 4.3% 대학원 이상 5.2% 건강 보통 3.6% 보통 9.8% 가정 생활 9.1% 가족 7.5% 가족 7.5% 가족 7.5% 가족 7.5% 가족 7.5% 가족 7.5% 가족 7.5% 가족 7.5% 가족 1.1% 조손 가구 1.1% 조손 가구 1.1% 3세대 가구 조손 가구 1.1% 있음 5.7% 미성년 7.8% 업음 5.3% 가족유무 없음 5.3% 가족유무 없음 6.3% 업음 5.0% 6.4% 이부 없음 5.0% 6.4% 이부 없음 5.0% 5.4% 이부 있음 7.5% 다족유무 없음 5.0% 6.4% 이부 있음 7.5% 다족유무 없음 5.0% 6.4% 이부 있음 7.5% 다족유무 없음 5.0% 5.3% 다주유무 없음 5.0% 5.4% 이부 있음 7.5% 다주유무 있음 7.5% 다주유무 있음 7.5% 다구 있음 7.5% 다구 있음 1.5% 다구 있음 1.5% 다구 다구 다구 있음 1.5% 다구 다구 있음 1.5% 다구		1,091	57.4%
혼인	기혼	2,323	737%	가족유무	없음	809	42.6%
상태	미혼	829	26.3%	귀농·귀촌	있음	294	9.3%
	1,000만 원 미만	308	9.8%	여부	없음	2,858	90.7%
여가	1,000만 원대	473	15.0%		농업·임업·어업	426	13.5%
	2,000만 원대	516	16.4%	1	자영업	462	14.6%
	3.000만 원대	608	19.3%		사무·관리직	1,078	34.2%
	. = = :	1,247	39.6%	지어	생산·기능·노무	299	9.5%
	1,000	1,217	00.070	. 78	주부	406	12.9%
					학생	105	3.3%
					퇴직	78	2.5%
					무직/ 기타	298	9.5%

- 농어촌 주민 2,203명 응답자의 인구 통계적 특성은 <표 3-10>과 같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 중에서도 인천·경기에 거주하는 응답자가 22.8%로 가장 많았고,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35.7%로 가장 많았다. 성별로 보면, 남성이 50.7%, 여성이 49.3%로 비슷했다. 응답자 중 귀농·귀촌한 응답자의 비율은 11.3%였다. 직업별로 보면, 사무·관리직이 28.9%로 가장 많았고, 농업·임업·어업에 종사하는 응답자가 18.3%로 그 다음으로 많았다.

〈표 3-10〉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2,203	100.0%		전체	2,203	100.0%
	서울	0	0.0%		무학	58	2.6%
	인천·경기	502	22.8%		초졸·중졸	341	15.5%
기조	대전·충청	428	19.4%	교육	고졸	625	28.4%
거주 - 지역 -	광주·전라	379	17.2%	수준	대졸	1,075	48.8%
717	대구·경북	349	15.9%		대학원 이상	104	4.7%
	부산·울산·경남	358	16.3%		네약면 이경	104	4.770
	강원·제주	187	8.5%	거가	좋음	934	42.4%
성별 -	남성	1,118	50.7%	건강 - 상태	보통	866	39.3%
0.5	여성	1,085	49.3%	0-11	나쁨	403	18.3%
	19~29세	294	13.5% 가정 생활 보토 866	1,122	50.9%		
	30대	298	13.5%	가성 생활 만족도	보통	866	39.3%
연령대	40대	376	17.1%	근국エ	불만족	215	9.7%
	50대	448	20.3%		독신 가구	278	12.6%
	60세이상	787	35.7%		1세대 가구	700	31.8%
	10년 미만	820	37.3%	가족	2세대 가구	1,063	48.2%
기조	10~19년	419	19.1%	구성	3세대 가구	113	5.1%
거주 - 기간 -	20~29년	280	12.7%		조손 가구	7	0.3%
기간	30~39년	213	9.7%		기타	42	1.9%
	40년 이상	465	21.2%	미성년	있음	693	56.6%
혼인	기혼	1,682	76.3%	가족유무	었음	532	43.4%
상태	미혼	521	23.7%	귀농·귀촌	있음	249	11.3%
	1,000만 원 미만	231	10.5%	여부		1,954	88.7%
OI 71	1,000만 원대	390	17.7%		농업·임업·어업	403	18.3%
연간 _		382	17.7%		자영업	329	14.9%
가구 소득					사무·관리직	637	28.9%
エコ	3,000만 원대	444	20.2%	직업	생산·기능·노무	213	9.7%
	4,000만 원 이상	756	34.3%	식합	주부	302	13.7%
					학생	64	2.9%
					퇴직	44	2.0%
					무직/기타	211	9.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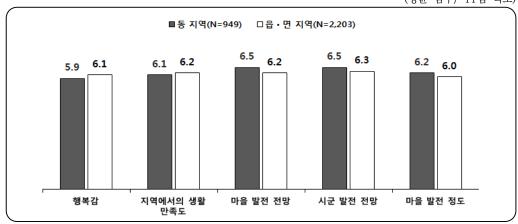
2.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2.1.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 현재의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에 대한 조사 결과,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도시민의 만족도 수치가 크게 하락한 영향 때문이다.
 - 2016년과 2017년 조사에선 두 항목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수 치가 동일하거나 도시민이 더 높았다.
 - 올해 조사에선 도시민의 행복감은 5.9점으로 작년에 비해 0.3점 하락하고, 거주하는 곳에서의 만족감은 6.1점으로 작년에 비해 0.2점 하락하여, 작년에 비해 각각 0.1점씩 하락한 농어촌 주민의 행복감(6.1점), 거주하는 곳에서의 만족감(6.2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지역의 발전 전망에 대해선 여전히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부정적으로 전망하고 있으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 차이는 감소하였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에 대한 도시민의 점수는 모두 6.5점이고, 농어촌 주민의 점수는 각각 6.2점과 6.3점으로, 도시민이 모두 높았다. 하지만 2017년 조사에서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 격차가 마을 발전 전망은 0.6점, 시·군 발전 전망은 0.3점이었던 것에 반해, 올해 조사에선 그 격차 폭이 각각 0.3점과 0.2점으로 감소하였다.
 - 특히 농어촌 주민의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만족도 수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 올해부터 추가된 항목인 '현재의 마을 발전 정도'에 대해선 도시민은 6.2점, 농어촌 주민은 6.0점으로 조사되었다. 즉, 도시민이 농어촌 주민에 비해 자신이 거주하는 마을이 더 발전되어 있다고 평가하고 있었다.

〈그림 3-1〉 2018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표 3-11〉도시·농어촌 주민의 행복감 및 전반적 생활 만족도 평균점수

(평균 점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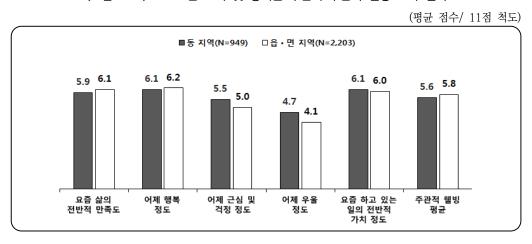
구 분	ē	!재 행복	부 감	살고 곳에서의		만족감 미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신규) 마을 발전 정도
	'16	'17	'18	'16	'17	'18	'16	'17	'18	'16	'17	'18	'18
도시 지역(동) (N=949)	6.4	6.2	5.9	6.6	6.3	6.1	6.8	6.7	6.5	6.9	6.8	6.5	6.2
농어촌 지역(읍면) (N=2,203)	6.4	6.2	6.1	6.5	6.3	6.2	6.0	6.1	6.2	6.4	6.5	6.3	6.0
도농 차이 (농어촌-도시)	0.0	0.0	0.2	-0.1	0.0	0.1	-0.8	-0.6	-0.3	-0.5	-0.3	-0.2	-0.2

주1: 2016년, 2017년 조사는 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0~10점 부여

2.2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 작년부터 도입된 주관적 웰빙 조사는, 객관적인 기준이 아닌 주관적인 판단 으로 개인의 삶의 행복 정도를 측정하는 조사다.
 - 정주 만족도 조사에서는 OECD의 BLI(Better Life Index)의 '주관적 웰빙'과 국민 삶의 질 지표의 '주관적 웰빙' 측정 문항을 활용하여 주관적 웰빙 지수를 산출하고 있다.

〈그림 3-2〉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 올해 조사 결과, 주관적 웰빙 지수가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더 높게 나타났다.
 - '요즘 삶의 전반적인 만족도'와 '어제 행복 정도'에 대해선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반면 '요즘 하고 있는 일의 전반적인 가치 정도'에 대해선 농어촌 주민이 도시민에 비해 더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어제 근심 및 걱정 정도'와 '어제 우울 정도' 문항에선 도시민이 농어촌 주민에 비해 부정적으로 답하였다. 특히 이두 문항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점수 차이가 각각 0.5점, 0.6점으로 컸다.
 - 부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2개 문항은 역코딩하여 재산출한 후, 5개의 문항의 평균값을 확인한 결과, 도시민은 5.6점, 농어촌 주민은 5.8점으로 농어촌 주민의 웰빙 지수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표 3-12>와 같이,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문항인 1번, 2번, 5번 모두 작년 조사에선 도시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으나, 올해 조사 결과, 1번, 2번 문항에 대해선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답하였다.

- 작년 수치와 비교해보면, 긍정적인 정서를 측정하는 세 개의 문항에 대해 도시민의 만족도는 모두 하락한 반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증가하거나 변화가 없었다.

〈표 3-12〉도시 및 농어촌의 주관적 웰빙 조사 평균 점수

(평균 점수)

구분	1.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3.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4.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5.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전체 평균 (3번, 4번 문항 역코딩)	
	'17	'18	'17	'18	'17	'18	'17	'18	'17	'18	'17	'18
도시 지역 (동 지역) n=949	6.1	5.9	6.3	6.1	6.0	5.5	5.3	4.7	6.2	6.1	5.5	5.6
농어촌 지역 (읍면 지역) n=2,203	6.0	6.1	6.2	6.2	5.5	5.0	4.6	4.1	6.0	6.0	5.6	5.8
도농차이 (농어촌-도시)	-0.1	0.2	-0.1	0.1	-0.5	-0.5	-0.7	-0.6	-0.2	-0.1	0.1	0.2

주1: 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

3.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

3.1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중요도 조사 결과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 중에서, 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정책 부문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는 <표 3-13>과 같다.
 - 도시민은 정주생활기반을 1순위로, 보건·복지를 2순위로, 경제활동·일자리를 3순위로 꼽았다.
 - 농어촌 주민은 보건·복지를 1순위로, 경제활동·일자리를 2순위로, 정주생활기반을 3순위로 꼽았다. 이러한 결과는 2017년 조사 결과와 동일하다.

〈표 3-13〉 2018년 삶의 질 향상 중요도 순위

단위: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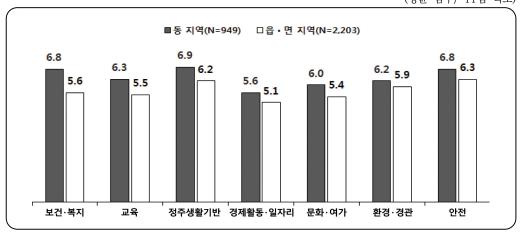
구분	(사	례수)	보건· 복지	교육	정주 생활 기반	경제 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경관	안전
	1순위	(949)	22.3	9.8	23.4	19.3	6.7	5.8	12.6
도시	비율	순위	2	5	1	3	6	7	4
지역	1~3순위	(949)	18.1	10.0	18.1	14.8	11.7	11.7	15.6
	비율	순위	1	7	2	4	6	5	3
	1순위	(2,203)	29.0	9.3	17.1	21.6	5.1	5.0	12.8
농어촌	비율	순위	1	5	3	2	6	7	4
지역	1~3순위	(2,203)	20.7	11.4	15.9	17.8	12.3	8.6	13.2
	비율	순위	1	6	3	2	5	7	4

3.2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평균 만족도를 비교한 결과, 모든 부문에 서 도시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가 큰 부문은 보건·복지, 교육, 정주 생활기반, 문화·여가 순이었다.

〈그림 3-3〉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보건·복지 부문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는 1.2점, 교육 부문의 차이는 0.8점, 정주생활기반의 차이는 0.7점, 문화·여가 부문의 차이는 0.6점이다.
- 2017년 조사 결과에 비해 문화·여가 부문의 도·농간 차이의 폭이 크게 감소하였다. 그 결과, 2017년 조사에선 문화·여가 부문이 도·농간 차이의 폭이가장 컸으나, 2018년 조사에선 보건·복지 부문의 도·농간 격차가 가장 컸다.
 - 교육, 문화·여가, 경제활동·일자리, 환경·경관 부문은 모두 작년에 비해 도·농간 차이의 폭이 좁혀졌다. 문화·여가 부문은 작년에 비해 도·농간의 격차 폭이 0.9점 감소하였고,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환경·경관 부문도도·농간의 격차 폭이 0.3점 감소하였다. 교육 부문의 도·농간의 격차 폭은 0.2점 감소하였다.
 - 반면, 보건·복지 부문은 작년에 비해 도·농간의 격차 폭이 0.2점 증가하였고, 안전 부문도 도·농간의 격차 폭이 0.1점 증가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큰 부문은 안전(6.3점), 정주생활기반(6.2점) 순이었다.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은 경제활동·일 자리(5.1점)였고, 문화·여가(5.4점), 교육(5.5점), 보건·복지(5.6점) 부문도 전 체 부문 평균 점수인 5.7점 보다 낮게 나타났다.
 - 작년과 비교하여 만족도 평균 점수가 증가한 부문은 문화·여가 부문뿐이다. 특히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은 작년에 비해 만족도 평균 점수가 0.4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표 3-14〉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평균 점수

(평균 점수)

			(06 01)				
부문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증감
	'17년	'18년	'17년	'18년	'17년	'18년	('18년 -'17년)
보건·복지	7.0	6.8	6.0	5.6	-1.0	-1.2	-0.4
교육	6.9	6.3	5.9	5.5	-1.0	-0.8	-0.4
정주생활기반	7.0	6.9	6.3	6.2	-0.7	-0.7	-0.1
경제활동·일자리	5.9	5.6	5.1	5.1	-0.8	-0.5	0.0
문화여가	6.5	6.0	5.0	5.4	-1.5	-0.6	0.4
환경·경관	6.5	6.2	5.9	5.9	-0.6	-0.3	0.0
안전	7.0	6.8	6.6	6.3	-0.4	-0.5	-0.3
전체 평균	6.7	6.4	5.8	5.7	-0.9	-0.7	-0.1

주1: 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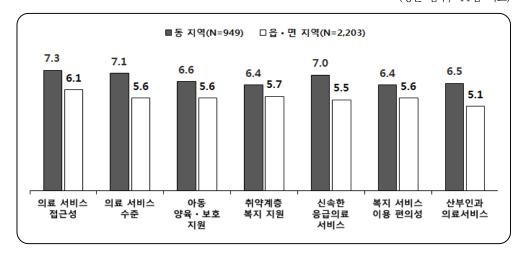
- 7대 정책 부문 중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이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클 뿐만 아니라, 작년도 조사 결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 도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특히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을 향상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여건으로 꼽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여건이 오히려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
-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작년에 비해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감소하였고, 특히 문화·여가 부문은 작년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 족도 평균 점수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과 경제활동·일자리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문화·여가 부문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은 농어 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가 가장 낮은 부문으로 조사되었다. 앞으로 농어촌 지역에 해당 정책 부문의 여건 개선을 위한 지속적인 노력이 필 요하다.

3.3. 7대 부문별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 평균 조사 결과

□ 보건·복지 부문

-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 결과,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 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았다. 그 중 '의료 서비스 수준'과 '신 속한 응급의료 서비스'의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1.5점으로 가장 컸다.
 - 그 다음으로 2018년 조사에 새로 추가된 문항인 '산부인과 의료서비스'의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1.4점으로 컸다. 뿐만 아니라 '산부인과 의료서비스'는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5.1점으로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가장 낮았다.

〈그림 3-4〉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 <표 3-15>와 같이,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평균점수는 작년에 비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신속한 응급의료서비스'와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항목의 만족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각각0.5점, 0.4점 하락하여 가장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뿐만 아니라 이 두 항목은 작년에 비해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 폭도 각각

0.4점, 0.1점씩 커진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과 관련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

〈표 3-15〉 2017년, 2018년 보건·복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납 하모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세부 항목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6	7.3	6.5	6.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7.3	7.1	5.9	5.6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6.7	6.6	5.7	5.6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6.5	6.4	6.0	5.7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1	7.0	6.0	5.5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6.6	6.4	5.8	5.6
(신규문항)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_	6.5	_	5.1
전체	7.0	6.8	6.0	5.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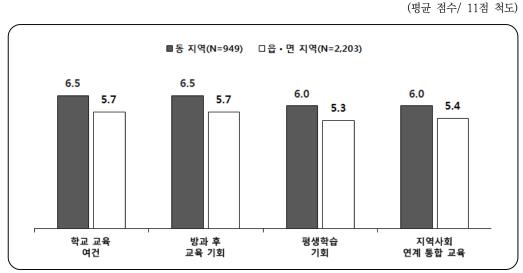
□ 교육 부문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학교 교육 여건'과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의 도·농간 만족도 차이가 가장 컸으나, 해당 항목과 관련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은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 '학교 교육 여건'과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의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0.8점으로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들 중 가장 컸다.
 - 그러나 <표 3-16>과 같이, 작년에 비해 두 항목의 도·농간 만족도 차이의 폭이 각각 0.3점, 0.5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고,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작년에 비해 0.1점 향상되었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항목은 '평생학습 기회'(5.3점)이었다. 올해 새롭게 문항이 추가된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5.4점)이 그 다음으로 낮았다.

- '평생학습 기회'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작년에 비해 0.2점 감소하였으나, 도·농간의 점수 차이의 폭은 0.4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5〉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 '학교 교육 여건' 항목은 올해 조사부터 단일 문항이 아닌 '교사 전문성', '학생들의 성취수준', '학교시설', '통학의 편리성' 등의 4개의 문항으로 조 사한 결과를 평균하여 만족도 점수를 도출하였다.
 - 4개의 문항 모두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고, 특히 '통학의 편리성'의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가 1.0점으로 가장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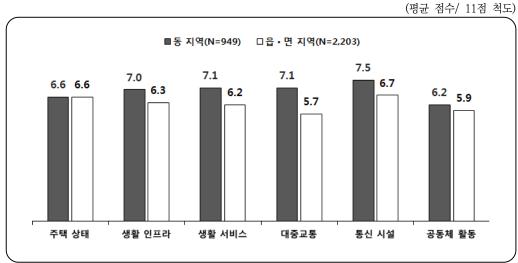
〈표 3-16〉 2017년, 2018년 교육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네ㅂ 하다				도시	지역	농어촌	- 지역
세부 항목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신규문항) 지역 학교(초/중/고)의 ()에 대	해 만족한디	 .				
문항	도시	농어촌	차이				
① 교사 전문성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6.4	5.7	-0.7	6.8	6.5	5.7	5.7
② 학생들의 성취수준	6.4	5.6	-0.8				İ
③ 학교시설	6.5	5.8	-0.7				
④ 통학의 편리성	6.8	5.8	-1.0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학교 방 있다.	강과후교육	, 사교육)을	을 받을 수	6.9	6.5	5.6	5.7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기	6.6	6.0	5.5	5.3			
(신규문항)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_	6.0	-	5.4			
전체				6.9	6.3	5.9	5.5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주택상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대중교통'과 '생활 서비스'의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각 각 1.4점, 0.9점으로 가장 컸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과 관련하여, 농어촌 대중교통 여건이 특히 열악해진 것 으로 보인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항목의 농어촌 주민 만족 도 점수가 5.7점으로 가장 낮았다.
 -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도 작년에 비해 0.1점 증가하였다.
 - 또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0.3점 감소하여 정주생활기반 부문 중 가장 많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3-6〉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표 3-17〉 2017년, 2018년 정주생활기반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비비 하다	세부 항목						
세구 영국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신규문항)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문항	도시	농어촌	차이				
① 규모가 적당하다.	6.5	6.5	0.0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7.0	6.8	-0.2	6.8	6.6	6.6	6.6
③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6.6	6.6	0.0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6.4	6.5	0.1				
	· 인프라기			7.2	7.0	6.3	6.3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0	용이 편i	리하다		7.4	7.1	6.4	6.2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3	7.1	6.0	5.7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7.7	7.5	6.9	6.7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5.7	6.2	5.8	5.9			
전체				7.0	6.9	6.3	6.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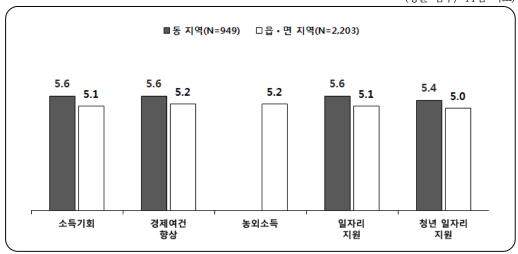
- '주택 상태' 항목은 올해 조사부터 단일 문항이 아닌 '규모의 적절성', '설비', '낙후도', '내구성' 등의 4개의 문항으로 조사한 결과를 평균하여 만족도 점수를 도출하였다.
 - 4개 문항 중 '설비'만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게 나타났다. '주택 상태' 항목의 만족도 점수는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이 6.6점으로 동일하게 나타났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 항목 모두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작년 과 비교가 가능한 세부 항목인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항목 모두 도· 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큰 폭으로 감소하였다.
 -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소득 기회'는 0.5점, '경제여건 향상'은 0.3점 감소하였다.
- 또한 '소득 기회' 항목과 '농외 소득' 항목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가 작년에 비해 각각 0.1점, 0.2점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 그러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모두 5점대 초반에 머무르고 있어, 7대 정책 부문의 세부 항목들 중에서 최저 점수에 속한다.
 -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 소득'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 는 각각 5.1점, 5.2점, 5.2점이다.
 - 2018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 항목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각각 5.1점, 5.0점으로 최저 점수에 속한다. 농어촌 지역의 경제활동·일자리 여건을 향상시키기 위한 지속적인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그림 3-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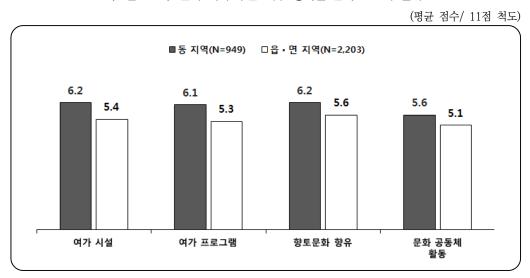
〈표 3-18〉 2017년, 2018년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 지역
^ T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6.0	5.6	5.0	5.1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6.0	5.6	5.3	5.2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농촌지역만 조사)**	5.8	-	5.0	5.2
(신규문항)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	5.6	-	5.1
(신규문항)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_	5.4	_	5.0
전체	5.9	5.6	5.1	5.1

^{*2017}년도 조사에선, '최근 1년간'의 경제활동 여건 향상 정도를 확인함. **2017년도 조사에선, 도시 지역 주민도 해당 문항에 대해 답하게 함.

□ 문화·여가 부문

-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 항목 모두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으나, 작년에 비해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모두 상승하였다.
 - 작년과 비교가 가능한 '여가시설', '여가 프로그램', '향토문화 향유' 항목의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이 각각 0.8점, 1.0점, 0.5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여가 시설', '여가 프로그램', '향토문화 향유' 항목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각각 0.3점, 0.5점, 0.4점씩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8〉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 2018년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문화 공동체 활동'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5.1점으로 나타났다.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0.5점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표 3-19〉 2017년, 2018년 문화·여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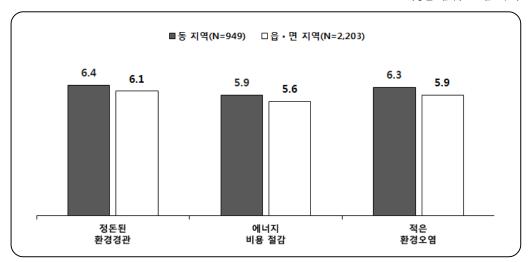
세부 항목		지역	농어촌 지역	
세포 8국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7	6.2	5.1	5.4
문화체육 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6	6.1	4.8	5.3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6.3	6.2	5.2	5.6
(신규문항)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_	5.6	_	5.1
전체	6.5	6.0	5.0	5.4

□ 환경·경관 부문

- '환경·경관'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 항목 모두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특히 적은 환경오염'의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이 0.4점으로 가장 컸다.
- '적은 환경오염' 항목은 작년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0.3점 하락하였고,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도 0.1점 증가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환경 오염과 관련된 여건이 열악해진 것으로 보인다.
- 반면,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은 작년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0.3점 증가하였고,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도 0.7점 감소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에너지 효율성과 관련된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3-9〉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표 3-20〉 2017년, 2018년 환경·경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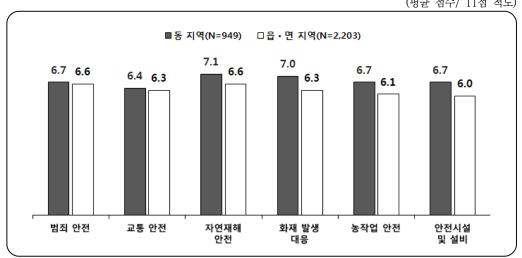
세부 항목	도시	기역	농어촌	지역
^ T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7	6.4	6.3	6.1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있다.	6.3	5.9	5.3	5.6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5	6.3	6.2	5.9
전체	6.5	6.2	5.9	5.9

□ 안전 부문

○ '안전' 부문의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세부 항목 모두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았고, '화재 발생 대응'과 '안전시설 및설비' 항목의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이 0.7점으로 가장 컸다.

〈그림 3-10〉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평균 점수/ 11점 척도)



〈표 3-21〉 2017년, 2018년 안전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비보 하모	도시	지역	농어촌	- 지역
세부 항목 	2017년	2018년	2017년	2018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8	6.7	6.8	6.6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6	6.4	6.5	6.3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2	7.1	7.0	6.6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7.2	7.0	6.7	6.3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농업종사자만 조사)	7.2	6.7	6.2	6.1
(신규문항)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_	6.7	_	6.0
전체	7.0	6.8	6.6	6.3

- 작년과 비교가 가능한 안전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자연재해 안전'과 '화재 발생 대응'과 관련된 농어촌 지역 여건이 악화된 것으로 보인다.
 - '자연재해 안전'과 '화재 발생 대응'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작 년에 비해 0.4점씩 하락하였다. 또한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도 작년에 비해 각각 0.3점, 0.2점씩 증가하였다.

○ 올해 조사에서 처음 도입된 항목인 '안전시설 및 설비' 항목은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도 0.7점으로 안전부문의 세부 항목들 중 가장 컸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6.0점으로 가장 낮았다.

□ 7대 정책 부문 전체 세부 항목 조사 결과

- 7대 정책 부문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6.3점 이상으로 높은 세부 항목은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3개, 안전 부문의 세부 항목 4개였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높은 순으로 보면,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통신 시설'이 6.7점으로 가장 높았고, '주택 상태', '범죄 안전', '자연재 해 안전'이 6.6점으로 다음으로 높았다. '생활 인프라', '교통 안전', '화재 발생 대응'이 6.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7대 정책 부문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5.3점 이하로 낮은 세부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1개,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1개, 문화·여가 부문의 세부 항목 2개,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5개)이었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순으로 보면,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청년 일자리 지원'이 5.0점으로 가장 낮았다.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소득 기회', '일자리 지원', '문화 공동체 활동'이 5.1점으로 그 다음으로만족도 점수가 낮았다. '경제여건 향상'과 '농외소득'이 5.2점, '평생학습기회', '여가 프로그램'이 5.3점으로 그 뒤를 이었다.
- '주택 상태'를 제외한 7대 정책 부문의 모든 세부 항목에서 도시민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 중 도·농간의 만족 도 차이 폭이 1.0 이상으로 큰 세부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5개 와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 항목이었다.
 - 보건·복지 부문의 7개 세부 항목 중에서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

- 비스 수준', '아동 양육·보호 지원',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등 5개의 세부 항목의 도·농간 격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선 '대중교통'항목 만이 도·농간 만족도 차이가 1.4 점으로 크게 나타났다.
- 작년과 비교하여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의 증감을 확인해보면, 문화·여가 부문의 3개 세부 항목만이 작년에 비해 만족도가 0.3점 이상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작년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0.3점 이상하락한 세부 항목은 보건·복지 부문의 4개 항목,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대중교통'항목, 환경·경관 부문의 '적은 환경오염'항목, 안전 부문의 2개 항목이었다.
 - 특히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는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도 크고 농어 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작년에 비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나, 해당 항목과 관련한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 또한 정주생활기반 부문 중 '대중교통' 항목도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농 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하락하였다. 농어촌 지역의 대 중 교통 여건을 향상하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표 3-22〉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증감 ('18년 -'17년)
	의료 서비스 접근성	6.1	-1.2	-0.4
	의료 서비스 수준	5.6	-1.5	-0.3
ы-э л	아동 양육·보호 지원	5.6	-1.0	-0.1
보건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0.7	-0.3
복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5	-1.5	-0.5
국시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5.6	-0.8	-0.2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5.1	-1.4	-
	(평균)	5.6	-1.2	-0.4
	학교 교육 여건	5.7	-0.8	0.0
	방과 후 교육 기회	5.7	-0.8	0.1
교육	평생학습 기회	5.3	-0.7	-0.2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5.4	-0.6	-
	(평균)	5.5	-0.8	-0.4
	주택 상태	6.6	0.0	0.0
	생활 인프라	6.3	-0.7	0.0
정주	생활 서비스	6.2	-0.9	-0.2
생활	대중 교통	5.7	-1.4	-0.3
기반	통신 시설	6.7	-0.8	-0.2
	공동체 활동	5.9	-0.3	0.1
	(평균)	6.2	-0.7	-0.1
	소득 기회	5.1	-0.5	0.1
거미하다	경제여건 향상	5.2	-0.4	-0.1
경제활동	농외소득	5.2	-	0.2
일자리	일자리 지원	5.1	-0.5	-
걸시니	청년 일자리 지원	5.0	-0.4	-
	(평균)	5.1	-0.5	0.0
	여가시설	5.4	-0.8	0.3
문화	여가프로그램	5.3	-0.8	0.5
	향토문화 향유	5.6	-0.6	0.4
여가	문화 공동체 활동	5.1	-0.5	-
	(평균)	5.4	-0.6	0.4
SL71	정돈된 환경경관	6.1	-0.3	-0.2
환경	에너지 비용 절감	5.6	-0.3	0.3
· 경관	적은 환경오염	5.9	-0.4	-0.3
·6건	(평균)	5.9	-0.3	0.0
	범죄 안전	6.6	-0.1	-0.2
Ī	교통 안전	6.3	-0.1	-0.2
	자연재해 안전	6.6	-0.5	-0.4
안전	화재 발생 대응	6.3	-0.7	-0.4
	농작업 안전	6.1	-0.6	-0.1
	안전시설 및 설비	6.0	-0.7	-
	(평균)	6.3	-0.5	-0.3

3.4 주관적 삶의 질 지수

- 농어업인의 삶의 질 향상 정책 7대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 어촌 주민의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와 '주관적 삶의 질 지수'를 산출하 였다.
 -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는 7대 부문별 지수로, 각 부문의 세부 항목의 평균 점수를 평균한 값이다.
 -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7대 부문의 만족도 점수를 종합한 종합 지수로,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들을 가중 평균7하여 산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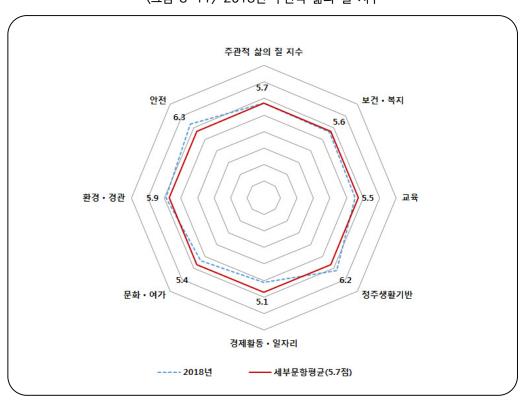
〈표 3-23〉 2012년~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주관적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						
구분	삶의 질 지수	보건· 복지	교육	정주생활 기반	경제활동· 일자리	문화 여가	환경· 경관	안전	지역 사회
2012년 (5점 만점)	2.7점	2.8점	2.5점	3.3점	2.1점	2.2점	3.4점	-	2.8점
2013년 (5점 만점)	3.3점	3.6점	3.4점	3.0점	2.9점	2.5점	3.8점	_	3.5점
2014년 (10점 만점)	4.8점	5.1점	4.5점	4.8점	3.9점	2.9점	5.3점	5.9점	5.5점
2015년 (10점 만점)	5.6점	5.9점	5.5점	6.0점	4.8점	4.7점	5.9점	6.6점	_
2016년 (10점 만점)	5.6점	6.0점	5.4점	6.2점	4.8점	4.7점	5.8점	6.5점	_
2017년 (10점 만점)	5.8점	6.0점	5.9점	6.3점	5.1점	5.0점	5.9점	6.6점	_
2018년 (11점 만점)	5.7점	5.6점	5.5점	6.2점	5.1점	5.4점	5.9점	6.3점	_

주: 2012년과 2013년 조사에서는 5점 척도(1~5점)를 사용하였고, 2014년과 2018년 조사에서는 11점 척 도(0~10점), 2015년~2017년에는 10점 척도(1~10점)를 사용하였다.

^{7 2018}년도 조사에서 농어촌 주민이 꼽은 7대 정책 부문별 중요도 순위 결과를 가지고 가중치를 산출했다. 7대 부문 중 1순위는 3점, 2순위는 2점, 1순위는 1점, 순위가 없으면 0점으로 환산한 평균값이 각 7대 부문의 가중치 값이다.

- 전체 세부 항목의 평균 점수인 5.7점을 기준으로 보면, 안전(6.3점), 정주생활기반(6.2점), 환경·경관(5.9점)의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가 상대적으로 높았다.
 - 경제활동·일자리(5.1점), 문화·여가(5.4점), 교육(5.5점), 보건·복지(5.6점) 의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는 상대적으로 낮았다.
- 주관적 삶의 질 부문 지수를 가중 평균하여 구한 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는 5.7점으로, 작년에 비해 0.1점 하락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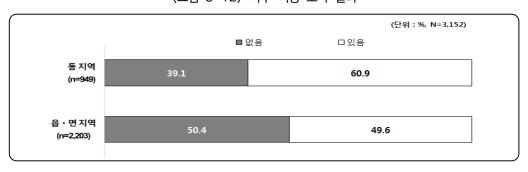


〈그림 3-11〉 2018년 주관적 삶의 질 지수

4.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 결과

- 정주 만족도와 해당 지역에서 계속 거주할 의향은 밀접한 관계가 있다. 도 시민과 농어촌 주민이 현재의 거주 지역을 삶의 터전으로 하여 계속 거주할 의향이 어느 정도 있는지 확인하고, 이를 비교하고자 이주 의향을 조사했다.
- 농어촌 주민에 비해 도시민의 이주 의향이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49.6%가 타 지역으로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반면, 도시민 응답자의 60.9%가 이주할 의향이 있다고 답하였다.
- 하지만 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 결과를 보면, 이주 의향이 있는 도시 민과 농어촌 주민 모두 과반수 이상이 도시로의 이주를 원했다.
 - 도시민 중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60.7%는 도시 내에서의 이주를 원했고, 농어촌 주민 중 이주 의향이 있는 응답자의 61.7%도 도시로의 이주를 원했다.

〈그림 3-12〉 이주 의향 조사 결과



〈표 3-24〉이주하려는 지역에 대한 조사결과

(단위: %)

구분	도시 주민	농어촌 주민
도시로	60.7	61.7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 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17.0	19.4
다른 사군의 농촌으로	17.8	12.4
현재 사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4.5	6.5
합계	100.0	100.0

- 이주 희망자를 대상으로 이주하려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도시민은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농어촌 주민은 '교통이 불편해서'를 가장 큰 이주 희망 이 유로 꼽았다.
 - 이주를 희망하는 도시민의 이주하려는 이유는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19.4%), '가족·직장 등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이사'(15.6%),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13.1%) 등이었다.
 - 이주를 희망하는 농어촌 주민의 이주하려는 이유는 '교통이 불편해서'(15.0%), '가족·직장 등과 관련한 사유로 인한 이사'(13.2%),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13.2%) 등이었다.

〈표 3-25〉이주 희망자의 이주하려는 이유

이즈슈티커트 이IO	응답비	율(%)
이주하려는 이유	도시 주민	농어촌 주민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	15.6	13.2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	13.1	13.2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	19.4	8.8
교통이 불편하다	7.6	15.0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5.9	9.7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6.4	8.3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9.0	4.0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2.1	6.6
마을에 사람이 너무 없어서	3.1	3.0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2.4	3.3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2.2	3.2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1.0	3.3
난방비가 많이 든다	4.2	1.3

이어 나타하지아	응답비	율(%)
이주하려는 이유	도시 주민	농어촌 주민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1.7	2.0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1.4	0.9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0.3	0.5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0.2	0.3
기타	4.3	3.5
합계	100.0	100.0

_제4 장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자료 분석

1. 분석 개요

- 그동안 축적된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추 가적인 분석을 실시하였다.
 - 첫째,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시계열 분석을 실시하였고,
 - 둘째,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차이 분석을 실시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시계열 분석은 2014년부터 2018년까지 총 5개 년에 걸친 조사 결과를 가지고 분석하였다.
 - 시계열 분석을 하는 데 있어서 동일한 방식으로 조사가 이루어진 데이터를 활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하였다. 특정 행정리를 마을 패널로하여 조사가 진행된 2012년과 2013년의 조사 결과를 제외하고, 지역별층화 추출 방식으로 표본을 구성하기 시작한 2014년 조사부터 올해 조사까지의 결과를 분석에 활용하였다.
 - 2012년과 2013년의 조사 결과는 패널로 선정된 특정 마을의 개별적인 특성이 조사 결과에 반영될 수 있어, 농어촌 지역 주민을 대표하는 조사 결

과로 보기에 한계가 있어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 시계열 분석에서 특히 척도(11점 척도)가 동일한 2014년과 2018년 조사 결과로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그동안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함께 분석하였다.
 -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점~10점)을 사용한 반면, 2014년과 올해 조사에선 11점 척도(0~10점)를 사용하여 조사를 진행하였다. 만족 도 수치의 정확한 비교가 가능한 2014년과 2018년의 데이터를 가지고 정주 만족도의 도·농간 차이의 변화를 확인하였다.
- 척도가 동일한 2014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 계적 특성별로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가 어떠한지 분석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직업별(농림어업 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차이를 확인하였고, 2014년과 2018년을 비교 하여 시간에 따른 그 차이의 폭의 변화도 확인하였다.

2.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시계열 분석

2.1.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시계열 분석(2014년~)

-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를 살펴보면, 2015년 기점으로 '행복감', '거주하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감', '시·군 발전 전망' 항목의 만족도가 하락하고 있다.
 - '마을의 발전 전망' 항목의 만족도만이 2016년부터 소폭 상승하는 추세다.

〈표 4-1〉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평균 점수 변화

(단위: 점)

구 분	나는 지금 행복하다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비고
2014년	5.6	5.8	4.7	5.8	11점 척도
2015년	6.7	6.7	6.2	6.7	10점 척도
2016년	6.4	6.5	6.0	6.4	10점 척도
2017년	6.2	6.3	6.1	6.5	10점 척도
2018년	6.1	6.2	6.2	6.3	11점 척도

주1: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4년과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 였음에 유의.

〈표 4-2〉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응답 비율 변화

단위: %

구 분	조사연도	부정적	보통	긍정적
	2014년	13.2	60.2	24.4
	2015년	9.9	47.5	42.4
나는 지금 행복하다.	2016년	11.7	53.7	34.6
	2017년	14.8	52.9	32.3
	2018년	9.2	64.5	26.3
	2014년	13.8	57.1	28.4
나는 지금 살고 있는 곳에	2015년	9.6	47.7	42.6
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2016년	10.9	51.9	37.2
시커 6일에 단극한테.	2017년	14.3	50.7	34.9
	2018년	9.7	59.8	30.5
	2014년	29.3	44.5	18.1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욱	2015년	14.8	51.0	33.9
누더 미글는 묘으도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6년	17.5	50.8	31.7
aca XMA.	2017년	15.8	53.6	30.6
	2018년	10.4	60.3	29.3
	2014년	15.3	50.1	25.1
이 기 기 기 이 아이를 다이	2015년	9.1	49.7	40.9
우리 시·군은 앞으로 더욱 발전할 것이다.	2016년	11.6	51.5	36.9
aca XMH	2017년	10.6	53.9	35.6
	2018년	9.4	58.0	32.7

주1: 조사 응답자 중 해당 문항에 대해 무응답('잘 모름')한 경우를 제외한 결과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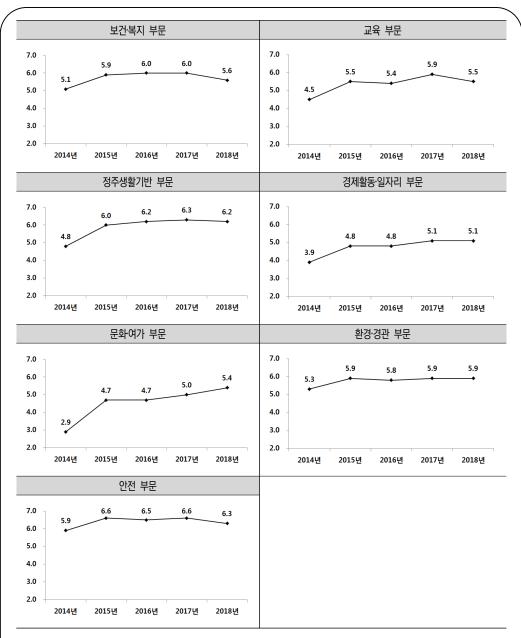
주2: 2014년, 2018년은 11점척도(0점~10점), 2015~2017년은 10점척도(1점~10점)으로 조사함. 11점척도에서는 0 점~3점이 부정, 4점~7점이 보통, 8점~10점이 긍정임. 10점 척도의 경우는 1점~3점이 부정, 4점~7점이 보통, 8점~10점이 긍정으로 구분함.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에 대해 긍정적으로 답한 농어촌 주민 응답자의 비율을 살펴보면, 2015년 기점으로 모든 항목에서 긍정적으로 답한 비율이 하락하고 있다.

2.2.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 시계열 분석(2014년~)

- 7대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평균 점수의 변화 추이를 살펴보았다.
-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의 평균 점수는 2014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표 4-3>과 같이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들 모두 2017년까지 만족도 가 상승하거나 유지하는 추이를 보였으나, 2018년 조사에서 모두 하락하였다. 특히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항목의 만족도가 가장 큰 폭(0.4점)으로 하락했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들을 살펴보면, 모든 세부 항목의 만족도가 상승하던 중 2016년에 소폭 하락하였다가 2017년에 다시 상승하였다. 2018년 조사에선 '평생학습 기회' 항목의 만족도가 0.2점 하락했고, 올해 조사부터 '학교 교육 여건' 항목의 문항에 포함된 '시설 및 교육 필요 장비', '학생 통학 어려움'의 만족도도 각각 0.5점, 0.4점씩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의 평균 점수는 매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특히 두 부문의 세부 항목들의 만족도 점수 모두 2017년부터 전년도에 비해 큰 폭으로 상승하는 추이를 보이고 있다.

〈그림 4-1〉 농어촌 주민의 7대 정책 부문별 평균 만족도 변화 추이



주1: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2014년과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사용하였음에 유의.

-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평균 점수는 매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지속해서 유지하고 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들의 만족도 점수를 살펴보면, '대중교통'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도는 6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반면 '대중교통'의 만족도만이 5점대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고, 2018년도엔 전년도에 비해 0.3점 하락하였다.
 - 환경·경관 부문에선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의 만족도 가 6점대를 유지하고 있다. '에너지 비용 절감'의 만족도는 5점대를 유지하고 있지만, 매년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표 4-3〉 농어촌 주민의 7대 부문 세부항목별 평균 점수의 변화

нп	연도별 평균점수										MH 왕다	
부문	201	4년	201	5년	201	6년	201	17년	201	8년	세부 항목	
		5.2		6.2	6.2			6.5		6.1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		5.8		5.9		5.9		5.6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4.8		5.6		5.5		5.7		5.6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보건 ·	5.1	5.2	5.9	6.0	6.0	6.0	6.0			5.7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복지		5.3			5.9	6.0		6.0		5.5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	_		-		5.8		5.6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_		-		-		5.1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2018년 신규문항〉	
	4.8			5.7		5.6		5.7		5.7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교육	4.5	_	5.5	5.5	5.4	5.3	5.9	5.6	5.5	5.7	학생들이 방과후교육, 각종 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정규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4.2		5.3		5.2		5.5		5.3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연도별 평균점수									
부문	201	4년	201	5년	201	6년	201	17년	201	18년	세부 항목
		_		-		-		6.3		5.8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2018년 학교 교육 여건 세부 문항 해당-평균점 수에서 제외〉
		-		-		_		6.2		5.8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2018년 학교 교육 여건 세부 문항 해당-평균점 수에서 제외〉
		-		-		-		-		5.4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2018년 신규문항〉
		5.3		6.5		6.4		6.6		6.6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2018년 - 세부 4개 문항 평균〉
		4.5		5.8		6.1		6.3		6.3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정주 생활	4.8	4.5	6.0	6.1	6.2	6.0	6.3	6.4	6.2	6.2	생필품 구입, 목욕탕, 이·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기반		4.9	5.7 5.8		6.0		5.7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_		_		6.7	7	6.9		6.7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		-		_		5.8		5.9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3.7		4.6		4.8		5.0		5.1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4.0		4.9		4.9	5.1	5.3		5.2	최근 1년간(2018년-'3년간'으로 변경)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경제 활동 ·	3.9	3.9	4.8	4.8	4.8	4.8		5.1	5.0	5.1	5.2
일자리		-		-		-		-		5.1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신규문항〉
		_		-		-		-		5.0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2018년 신규문항〉
		3.3		4.8		4.8		5.1		5.4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문화 여가	2.9	2.5	4.7	4.6	4.7	4.5	5.0	4.8	5.4	5.3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 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_		_		-		5.2		5.6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 문화를 접할 수 있다.

но	연도별 평균점수										베브 참모	
부문	201	4년	2015년		201	6년	201	17년	2018년		세부 항목	
		-		_		-		-		5.1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 을 활발히 하고 있다. 〈2018년 신규문항〉	
환경		5,2		6.3		6.2		6.3	6.3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 ° 경관	5.3	-	5.9	5.0	5.8	5.1 5.9	5.9	5.3	5.9	5.6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5.4		6.4		6.2	6.2			5.9	쓰레기·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1		6.7		6.7		6.8	6.8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5.7		6.3		6.4		6.5	6.5 7.0	6.5	6.3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5.8		6.8		7.0		7.0		6.6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안전	5.9	-	6.6	- 6.5	6.5	6.4	6.6	6.7	6.3	6.3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		-		5.9		6.2		6.1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		-		-		-		6.0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 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2018년 신규문항〉	
전체	1 4.6		5.	6	5	.6	5	.8	5	.7	(전체 평균)	

주1: 2014년, 2018년 조사는 11점 척도(0~10점 부여), 2015년~2017년 조사는 10점 척도(1~10점 부여) 사용하 였음에 유의.

2.3. 2014년과 2018년의 도·농간 만족도 차이

- 2014년과 2018년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를 확인하였다. 4개 문항 모두 2014년엔 도시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보다 큰 폭으로 높았으나, 2018년엔 차이의 폭이 크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 높아졌다.
 -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문항의 경우, 2014년엔 농어촌 주민에 비해 도시민의 만족도 점수가 각각 1.5점, 1.4점 더 높았다. 그러나 2018년 조사에선 오히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도시민에 비해 각각 0.2점, 0.1점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 '마을 발전 전망'과 '시·군 발전 전망'도 2014년엔 도시민의 만족도 젂수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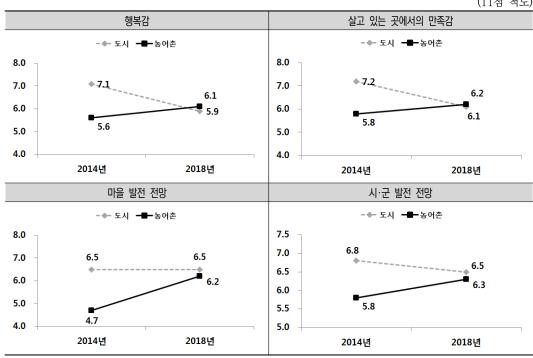
농어촌 주민보다 각각 1.8점, 1.0점 높았으나, 2018년엔 그 폭이 각각 0.3점과 0.2점으로 감소했다.

〈표 4-4〉 2014년, 2018년 도사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11점 척도)

구 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만	· 곳에서의 독감	마을 빌	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2014년	2018년
도시지역(동)	7.1	5.9	7.2	6.1	6.5	6.5	6.8	6.5
농어촌 지역(읍·면)	5.6	6.1	5.8	6.2	4.7	6.2	5.8	6.3
도·농 차이 (농어촌-도시)	-1.5	0.2	-1.4	0.1	-1.8	-0.3	-1	-0.2

〈그림 4-2〉 2014년, 2018년 도시·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질 만족도 평균 점수



- 앞선 시계열 분석에선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항목의 점수가 2015년 기점으로 지속적으로 하락하였으나, 도시민의 만족도 하락 추세가 그보다 더 급격하게 이루어졌다.
 - 2014년과의 2018년 조사 결과만 비교했을 때는, 오히려 농어촌 주민은 5년 사이에 4개 문항의 만족도 점수가 모두 상승한 반면, 도시민의 만족도 점수 는 모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표 4-5〉 2014년,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비교

					(11점 적도)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농어촌	2018년 농어촌	농어촌 지역 증감 ('18년-'14년)	도·농 차이의 폭 증감 [*]
	의료 서비스 접근성	5.2	6.1	0.9	-1.3
	의료 서비스 수준	-	5.6	_	_
ш 71	아동 양육·보호 지원	4.8	5.6	0.8	-0.1
보건	취약계층 복지 지원	5.2	5.7	0.5	0.2
복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3	5.5	0.2	0.1
7/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	5.6	-	-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	5.1	-	-
	(평균)	5.1	5.6	0.5	-0.2
	학교 교육 여건	4.8	5.7	0.9	-0.9
	방과 후 교육 기회	-	5.7	_	_
교육	평생학습 기회	4.2	5.3	1.1	-0.9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	5.4	-	_
	(평균)	4.5	5.5	1.0	-0.9
	주택 상태	5.3	6.6	1.3	-1.4
	생활 인프라	4.5	6.3	1.8	-2.1
정주	생활 서비스	4.5	6.2	1.7	-2.1
생활	대중 교통	4.9	5.7	0.8	-1.3
기반	통신 시설	-	6.7	_	_
	공동체 활동	-	5.9	_	-
	(평균)	4.8	6.2	1.4	-1.8
	소득 기회	3.7	5.1	1.4	-1.2
경제	경제여건 향상	4.0	5.2	1.2	-0.7
활동 ·	농외소득	3.9	5.2	1.3	_
일자	일자리 지원	-	5.1	-	-
리	청년 일자리 지원	-	5.0	-	_
	(평균)	3.9	5.1	1.2	-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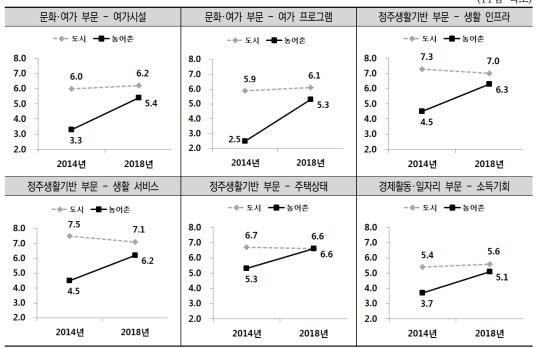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농어촌	2018년 농어촌	농어촌 지역 증감 ('18년-'14년)	도·농 차이의 폭 증감*
	여가 시설	3.3	5.4	2.1	-1.9
문화	여가 프로그램	2.5	5.3	2.8	-2.6
	향토문화 향유		5.6	-	-
여가	문화 공동체 활동		5.1	-	_
	(평균)	2.9	5.4	2.5	-2.5
	정돈된 환경경관	5.2	6.1	0.9	-0.8
환경 ·	에너지 비용 절감	-	5.6	_	_
경관	적은 환경오염	5.4	5.9	0.5	-0.6
	(평균)	5.3	5.9	0.6	-0.8
	범죄 안전	6.1	6.6	0.5	-0.2
	교통 안전	5.7	6.3	0.6	-0.4
	자연재해 안전	5.8	6.6	0.8	-0.6
안전	화재 발생 대응	-	6.3	-	_
	안전시설 및 설비	-	6.0	-	-
	농작업 안전	-	6.1	-	-
	(평균)	5.9	6.3	0.4	-0.1

주) * 도·농 차이의 폭 증감: '14년 도·농 차이(농어촌-도시)-'18년 도·농 차이(농어촌-도시)

- <표 4-5>와 같이, 2014년도와 2018년도 조사의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를 비교하였다.
 - 비교가 가능한 모든 세부 항목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상승하였다.
 - 2014년과 2018년 모두, '주택 상태'를 제외한 (2018년 '주택 상태' 항목의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동일하다) 모든 세부 항목의 도시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보다 높다. 하지만 세부항목별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의 폭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모두 감소하였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1.3점 이상 큰 폭으로 상승하였고, 동시에 도·농간 만족도 점수 차이의 폭도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1.2점 이상 큰 폭으로 감소한 세부 항목은 <그림 4-3>과 같다.
 - 문화·여가 부문의 '여가 시설'과 '여가 프로그램'의 항목은 농어촌 주민의 만

- 족도도 각각 2.1점과 2.8점씩 상승하여 가장 크게 상승하였다. 도·농간 만족도 차이의 폭도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각각 1.9점, 2.6점씩 감소하였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에선 '주택 상태',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각각 1.3점, 1.8점, 1.7점씩 상승하였고, 도·농간 만족 도 차이의 폭도 각각 1.4점, 2.1점씩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에선 '소득 기회' 항목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1.4점 상승하였다. 또한 도·농간 만족도 차이의 폭도 1.2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 즉, 이 6개의 세부 항목과 관련된 농어촌 지역의 여건은 지난 5년간 향상되었을 뿐만 아니라 도시와 농어촌의 격차도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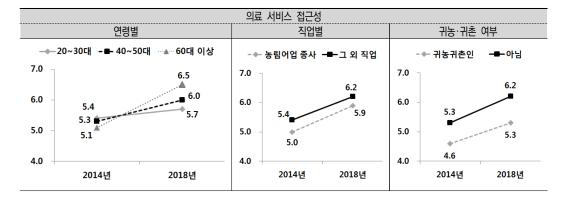
〈그림 4-3〉 5년간 크게 개선된 정주 여건 세부 항목



3.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 11점(0~10점) 척도로 조사가 이루어진 2014년과 2018년의 조사 결과를 활용하여,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가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라 어떠한 차이가 있는지 확인하였다.
 - '7대 정책 부문별 삶의 질 여건에 대한 만족도'의 세부 항목 중 2014년(2014년 데이터가 없는 경우 2015년 활용)과 2018년의 비교가 가능한 항목을 분석했다.8
- 농어촌 주민의 연령별, 직업별(농림어업종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에 따라 만족도에 어떠한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였다. 9 또한 그 차이의 폭이 5년 (또는 4년) 사이에 어떻게 변화하였는지도 확인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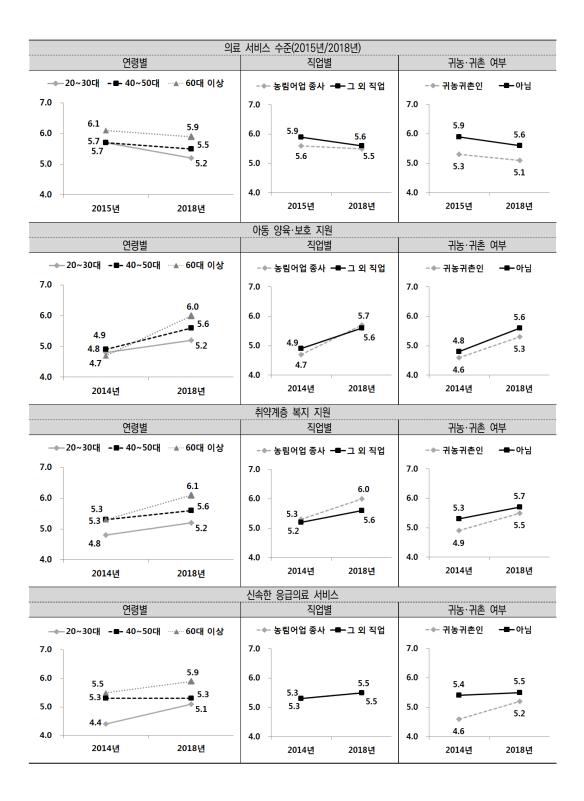
□ 보건·복지 부문



〈그림 4-4〉 보건·복지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8 2014}년과 2018년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만족도 분석 결과 및 표본수 <부록 5> 참고

⁹ 인구통계적 특성 중 연령별, 성별, 직업별(농림어업종사 여부), 다세대가구 여부, 귀 농·귀촌 여부 등에 따른 차이를 분석해보았다. 그 결과, 연령별, 직업별(농림어업종 사 여부), 귀농·귀촌 여부가 만족도 점수의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인구통계적 특성 인 것으로 나타나, 이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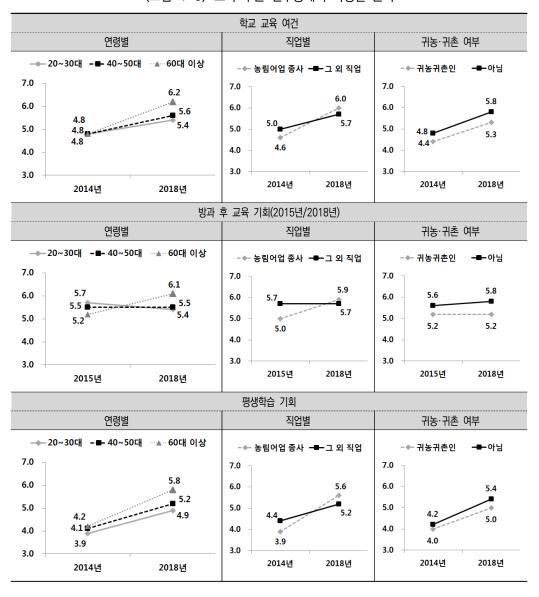


- 연령별로 농어촌 주민의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에 대한 만족도를 살펴 본 결과, 전반적으로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높고, 20~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또한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5년(또는 4년) 사이에 나타난 만족도 상승 폭이 20~30대보다 60대 이상이다 높았다. 만족도가 하락한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에서는 60대 이상의만족도 하락 폭보다 20~30대의 하락 폭이 더 컸다.
 -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과 '아동 양육·보호 지원' 항목의 경우, 2014년도 엔 20~30대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2018년도 결과에선 60대 이상의 만족도 가 더 높게 나타나기도 했다.
 - 노인이 체감하기에 농어촌 지역의 보건·복지 여건이 향상되고 있는 반면, 젊은 세대가 체감하기엔 그 향상 정도가 아직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 모든 세부 항목에서 60대 이상의 만족도는 6점에 가까우나, 20~30대의 만족도는 5점대 초반에 머물고 있어 그 격차가 크다.
- 직업별(농림어업종사 여부) 차이를 살펴본 결과,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 된 세부 항목에서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에 비해 낮았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항목에서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보다 만족도 낮았다.
 - '취약계층 복지 지원' 항목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보다 높았고, 5년 사이에 그 만족도 격차가 더 커졌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세부 항목에서 귀농·귀촌 인의 만족도가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보다 더 낮았다. 특히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항목은 5년 사이에 그 만족도 격차도 커졌다.
 - 2018년 조사에서 보건·복지 부문의 세부 항목 중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가 가장 낮은 항목도 '의료 서비스 수준'이었다.

□ 교육 부문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학교 교육 여건',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에 선 학부모일 가능성이 높은 20~30대와 40~50대의 만족도가 60대 이하보다 더 낮았다.
 - 특히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의 경우, 4년 사이에 20~30대의 만족도가 하락하기도 했다.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2014년(또는 2015년)엔 농림어 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그 외의 직업을 가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보다 낮았으나, 2018년도엔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농림어업종사자가 체감하는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은 5년(또는 4년) 사이에 크게 향상된 반면,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이 체감하기엔 그렇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에선, 농림어업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의 만족도가 4년 동안 변함이 없었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보다 낮았고, 5년(또는 4년) 사이에 그 격 차도 커졌다.
 - 특히 2018년 조사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교육 부문 세부 항목은 '평생학습 기회'(5.0점)였다.
- 이러한 결과는 교육 여건에 대한 기대가 더 크고 도시와 비교도 가능한 젊은층, 농림어업 외 종사자, 귀농·귀촌인에게 특히 농어촌 지역의 교육 여건이 만족스럽지 못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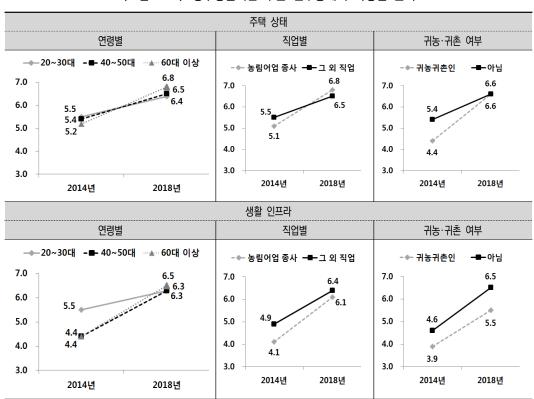
〈그림 4-5〉 교육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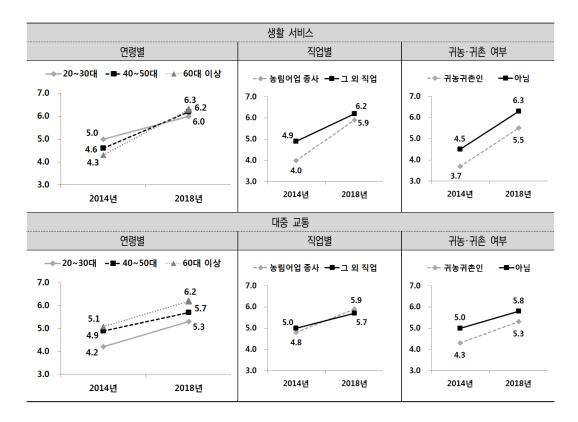


□ 정주생활기반 부문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대중교통'을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전 연령의 만족도가 2018년도에 6점 이상으로 높았고, 5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40~50대, 60대 이상의 주민 모두 5년 사이에 만족도가 가장 크게 상승한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은 '생활 인프라'로 각각 1.9점, 2.1점씩 상승하였다. 40대 이상의 주민이 체감하기에 농어촌 지역의 상·하수도 시설 등의생활 인프라 여건이 크게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 '대중교통'의 경우, 5년 사이에 전 연령대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타 항목에 비해 상승폭이 낮다. 특히 2018년도 조사의 20~30대 만족도는 5점 초반대에 머물렀다.

〈그림 4-6〉 정주생활기반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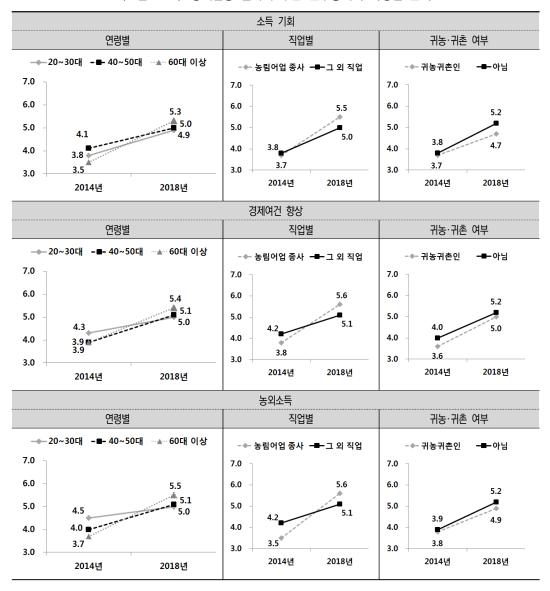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도 조사에선 모든 항목에서 농림어업종 사자의 만족도가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보다 낮았다. 그러나 농림어업종 사자의 만족도가 5년 사이에 더 큰 폭으로 상승하면서 2018년도엔 그 차이 의 폭이 크게 줄거나 오히려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주택 상태'를 제외한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의 만족도 보다 낮았다.
 - '특히 '생활 인프라' 항목은 5년 동안 그 격차가 커졌다. '생활 서비스'도 귀농·귀촌인과 아닌 주민 간의 격차가 5년 동안 0.8점으로 변화가 없었다.
 - 2018년 조사에서 정주생활기반 부문 중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5.3점으로 '대중교통'이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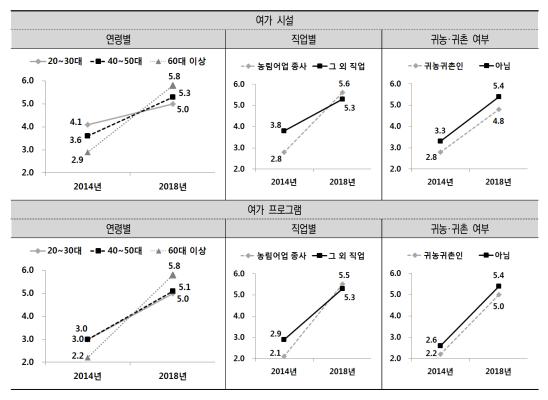
〈그림 4-7〉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2014년 조사엔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반면, 2018년도 조사엔 20~30대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모든 항목에서 5년간 전 연령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지만, 60대 이상의 상승폭에 비해 20~30대와 40~50대의 상승폭이 작았다. '소득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항목의 60대 이상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상승 폭이 각각 1.8점, 1.5점, 1.8점인 것에 반해, 20~30대 이상 주민의 상승 폭은 각각 1.1점, 0.7점, 0.5점에 머물렀다.
 - 2018년 조사에서 20~30대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은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은 4.9점으로 '소득 기회'였다.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2014년 조사엔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더 낮은 반면, 2018년도 조사엔 그 외의 직업을 가진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의 세부 항목 중 5년간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많이 상승한 항목은 '농외소득'으로, 2.1점 상승하였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2018년 조사에서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항목의 귀농·귀촌 인의 만족도 점수는 각각 4.7점, 5.0점, 4.9점으로, 2014년 조사에 비해 만족 도가 1점 이상 상승하였다.
 - 하지만 다른 인구특성으로 구분된 주민 그룹과 비교하였을 때, 경제활동·일 자리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 났다.

□ 문화·여가 부문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문화·여가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5년의 기간 동안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전 연령의 만족도가 상승하였으나, 특히 60대 이상의 '여가 시설'에 대한 만족도는 2.9점, '여가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는 3.6점 증가하였다.
 - 농어촌 지역에 노인을 대상으로 한 문화·여가 관련 서비스 여건이 크게 향상 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8〉 문화·여가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엔 농림어업종사자의 문화·여가 부문의 항목들에 대한 만족도가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들에 비해 현저히 낮았으 나, 2018년엔 비슷한 수준으로 향상되었다. 오히려 2018년 조사에선 농림어 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보다 소폭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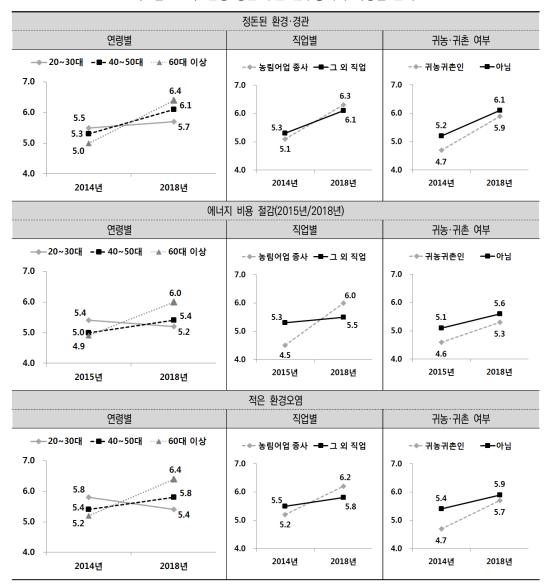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의 만족도 모두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 하지만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점수가 '여가 시설'은 4.8점, '여가 프로그램'이 5.0점으로 여전히 낮은 편이다.

□ 환경·경관 부문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환경·경관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60대 이상과 40~50대의 만족도는 상승한 반면, 20~30대의 만족도는 상승 폭이 작거나 오히려 하락하였다.
 -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과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서 20~30대의 만족도 점수 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각각 0.2점, 0.4점씩 하락하여, 각각 5.2점과 5.4 점을 기록하였다.
 - 2018년 조사 결과를 보면, '정돈된 환경·경관', '에너지 비용 절감', '적은 환경오염' 항목에서 60대 이상과 20~30대의 만족도 격차가 각각 0.7점, 0.8점, 1.0점이었다.
 -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것은 연령대에 따라 농어촌 지역의 환경·경관에 대한 기대치가 다르기 때문일 수 있다.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환경·경관 부문의 모든 항목에서 5년(또는 4년) 기간 동안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 상승 폭이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에 비해 높았다.
 - 특히 '에너지 비용 절감' 항목의 경우,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 상승 폭이 1.5점인데 반해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의 만족도 상승 폭은 0.2점으로, 상승 폭의 차이가 컸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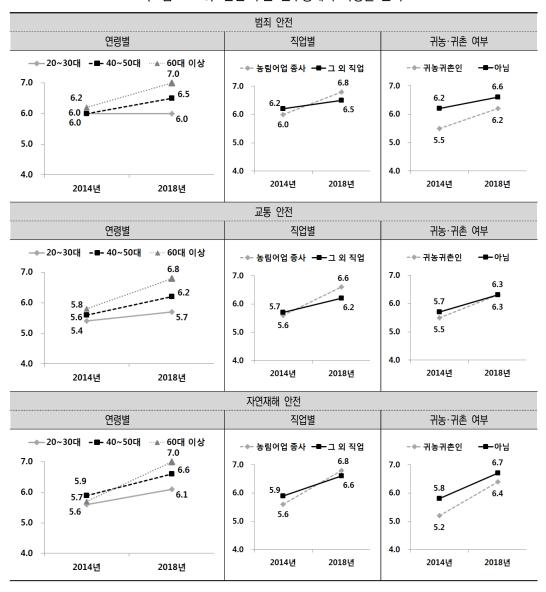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결과, 2014년(또는 2015년)엔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에 비해 0.5점 이상 낮았으나, 2018년 조사에선 만족도 점수가 모두 상승하였고 그 격차도 0.3점 이하로 좁혀졌다.

〈그림 4-9〉 환경·경관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 안전 부문

〈그림 4-10〉 안전 부문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 연령별 차이를 살펴본 결과, 모든 세부 항목에서 전 연령의 만족도가 5년의 기간 동안 대부분 상승하였다. 다만, '범죄 안전' 항목에서 20~30대의 만족 도는 2014년과 2018년 모두 6.0점으로 동일하였다.
- 직업별 차이를 살펴보면, 모든 항목에서 농림어업종사자와 그 외 직업을 가 진 주민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고, 2018년 조사에선 모두 6.2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차이에서도, 모든 항목에서 귀농·귀촌인과 귀농·귀 촌인이 아닌 주민의 만족도가 모두 상승하였고, 2018년 조사에선 모두 6.2 점 이상의 높은 만족도를 보이고 있다.

□ 7대 정책 부문 전체 세부 항목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분석 결과

- 연령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5년간 '여가 프로그램' 항목의 만족도가 20~30대는 2점, 40~50대는 2.1점, 60대 이상은 3.6점 증가하여, 각 연령별로 만족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에 해당한다. 하지만 2018년 조사에서 '여가 프로그램' 항목의 만족도가 20~30대는 5.0점, 40~50대는 5.1점으로 각 해당 연령 대에서 만족도가 낮은 항목에 속한다.
 - 즉, 농어촌 지역의 여가 프로그램 서비스 여건이 크게 향상되었으나, 여전히 다른 정주 여건에 비해 열악한 상황이다. 특히 젊은 세대가 체감하기에 농어 촌 지역의 문화·여가 관련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조사에서 연령별로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20~30대는 '평생학습 기회'(4.9점), '소득 기회'(4.9점)였고, 40~50대는 '소 득 기회'(5.0점), 60대 이상도 '소득 기회'(5.3점)인 것으로 나타났다.
 - 전 연령대가 특히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을 열악하게 체감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젊은 세대는 타 연령에 비해 자기개발을 위한 평생학습 기회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여, 농어촌 지역의 청년층을 대상으로 한 다양한 교육 기회가 마련될 필요가 있다.
- 직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5년간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2점 이상 상승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 '여가 시설', '농외 소득', '생활인프라'였고,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의 만족도가 2점 이상 상승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이었다.
 - 특히 농림어업종사자가 체감하기에, 농어촌 지역에서 농외소득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된 것으로 보인다.
- 2018년 조사에서 직업별로 가장 만족도 점수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농림 어업종사자는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소득 기회', '여가 프로그램'이 모 두 5.5점으로 가장 낮았다.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은 '소득 기회'가 5.0점으 로 가장 낮았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를 보면, 5년간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2점 이상 상승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 '주택 상태', '여가 시설'이었다.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의 만족도가 2점 이상 상승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 '여가 시설'이었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2018년 만족도 조사를 보면, 귀농·귀촌인과 귀농·귀 촌인이 아닌 주민 모두 가장 만족도가 낮은 항목이 '소득 기회'였다. 특히 귀농·귀촌인의 '소득 기회' 항목 만족도 점수는 4.7점으로 현저히 낮았다.

〈표 4-6〉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정주 만족도 5년간 증감 및 인구통계적 특성별 격차

(11점 척도)

			5년	간 증감(2018년-2	014년/20 ¹	15년)		2018		성별 격차
			연령별		직업	검 별	귀농·구	l촌 여부	연령별	직업별	귀농·귀촌 여부
부문	세부 항목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농림 어업 종사	그 외 직업	귀농 귀촌 인	아님	60대 이상 - 20~30 대	그 외 직업 - 농림어업 종사	귀농·귀촌 아님 - 귀농·귀촌 인
	의료 서비스 접근성	0.3	0.7	1.4	0.9	0.8	0.7	0.9	0.8	0.3	0.9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2015년) [*]	-0.5	-0.2	-0.2	-0.1	-0.3	-0.2	-0.3	0.7	0.1	0.5
	아동 양육·보호 지원	0.4	0.7	1.3	1	0.7	0.7	0.8	0.8	-0.1	0.3
복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0.4	0.3	0.8	0.7	0.4	0.6	0.4	0.9	-0.4	0.2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0.7	0	0.4	0.2	0.2	0.6	0.1	0.8	0.0	0.3
	학교 교육 여건	0.6	0.8	1.4	1.4	0.7	0.9	1	0.8	-0.3	0.5
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2015년) [*]	-0.3	0	0.9	0.9	0	0	0.2	0.7	-0.2	0.6
	평생학습 기회	1	1.1	1.6	1.7	0.8	1	1.2	0.9	-0.4	0.4
717	주택 상태	0.9	1.1	1.6	1.7	1	2.2	1.2	0.4	-0.3	0.0
정주 생활	생활 인프라	0.8	1.9	2.1	2	1.5	1.6	1.9	0.2	0.3	1.0
기반	생활 서비스	1	1.6	2	1.9	1.3	1.8	1.8	0.3	0.3	0.8
	대중 교통	1.1	0.8	1.1	1.1	0.7	1	0.8	0.9	-0.2	0.5
경제	소득 기회	1.1	0.9	1.8	1.8	1.2	1	1.4	0.4	-0.5	0.5
활동 ·	경제여건 향상	0.7	1.2	1.5	1.8	0.9	1.4	1.2	0.4	-0.5	0.2
일자 리	농외소득	0.5	1.1	1.8	2.1	0.9	1.1	1.3	0.5	-0.5	0.3
	여가시설	0.9	1.7	2.9	2.8	1.5	2	2.1	0.8	-0.3	0.6
여가	여가 프로그램	2	2.1	3.6	3.4	2.4	2.8	2.8	0.8	-0.2	0.4
	정돈된 환경경관	0.2	0.8	1.4	1.2	0.8	1.2	0.9	0.7	-0.2	0.2
환경 ·	에너지 비용 절감(2015년)*	-0.2	0.4	1.1	1.5	0.2	0.7	0.5	0.8	-0.5	0.3
경관	적은 환경오염	-0.4	0.4	1.2	1	0.3	1	0.5	1.0	-0.4	0.2
	범죄 안전	0	0.5	0.8	0.8	0.3	0.7	0.4	1.0	-0.3	0.4
안전	교통 안전	0.3	0.6	1	1	0.5	0.8	0.6	1.1	-0.4	0.0
	자연재해 안전	0.5	0.7	1.3	1.2	0.7	1.2	0.9	0.9	-0.2	0.3
	(표본수)	165	348	655	541	627	98	1,070	-	-	-

주) * 2014년에 해당 항목이 조사되지 않아, 2014년 대신 2015년 조사 결과 활용

-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인구통계적 특성별 격차를 확인하였다.
 - 60대 이상과 20~30대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통 안전'이었다. 노인층에 비해 젊은층 주민은 농어촌 지역의 교통 여건이 안전하지 못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 농림어업종사자와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 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에너지 비용 절감'이었다. 특히 농림어업 종사자보다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들이 체감하는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이 열악한 것으로 보인다.
 -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 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생활 인프라'이다. 귀농·귀촌인은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 보다 농어촌 지 역의 상·하수도 등의 생활 인프라가 열악하다고 인지하고 있다.

제 **5** 장

결론 및 시사점

1. 주요 분석 결과

-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는 농어촌 주민이 주관적으로 체감하는 농 어촌 지역의 정주 여건 수준을 파악하고자 진행되었다. 2018년 정주 만족도 조 사 결과와 그동안 축적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조사 결과, 대부분의 문항에서 도시민의 만족도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높았다.
 - '현재 행복감'과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항목에선, 도시민보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더 높게 나타났다.
 -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항목에선 도시민의 만족도가 더 높았으나, 작년 조사에 비해 도·농간의 점수 격차가 감소하였다. 특히 농어촌 주민의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수치는 2016년부터 꾸준히 상승하고 있다. 올해부터 추가된 조사 항목인 '현재의 마을 발전 정도' 항목에선 도시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보다 소폭(0.2점) 높았다.
 - '주관적 웰빙' 조사 결과, 주관적 웰빙 조사 지수가 도시민(5.6점)에 비해 농 어촌 주민(5.8점)이 더 높게 나타났다. 특히 긍정적 정서를 측정하는 3개의

세부 문항에서 도시민의 만족도는 모두 하락한 반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는 증가하였다.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7대 정책 부문에서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여건이 무엇인지 조사한 결과, 1순위 보건·복지, 2순위 경제활동·일자리, 3순위 정주생활기반인 것으로 나타났다.
- 7대 정책 부문별 만족도 조사 결과, 도시민과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격차가 가장 크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가장 많이 하락한 부문은 '보건·복지'와 '교육'이었다.
 - 보건·복지 부문의 도·농간의 격차 폭은 1.2점으로 작년에 비해 증가하였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5.6점으로 전체 부문 평균 점수(5.7점)보다 낮 았고, 7대 정책 부문 중 작년에 비해 가장 큰 폭(0.4점)으로 하락하였다.
 - 교육 부문의 도·농간의 격차 폭은 0.8점으로 7대 정책 부문 중 두 번째로 컸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5.5점으로 전체 부문 평균 점수보다 낮았고, 7대 정책 부문 중 작년에 비해 가장 큰 폭(0.4점)으로 하락하였다.
- 7대 정책 부문별 세부 항목(총 35개 항목)에 대한 만족도 조사 결과는 다음 과 같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항목은 '통신 시설', '주택 상태', '범죄 안전', '자연 재해 안전', '생활 인프라', '교통 안전', '화재 발생 대응'이었다.
 -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항목은 '청년 일자리 지원', '산부 인과 의료 서비스', '소득 기회', '일자리 지원', '문화 공동체 활동', '경제여 건 향상', '농외소득'이었다.
 - 도·농간의 격차가 상대적으로 큰 항목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아동 양육·보호 지원',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대중교통'이었다.

- 2014년부터 2018년까지의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를 가지고 시계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문항 중 '행복감', '거주하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 감', '시·군 발전 전망'의 만족도는 2015년부터 하락 추세인 반면, '마을 의 발전 전망' 항목의 만족도는 2016년을 기점으로 상승 추세이다.
 - 보건·복지 부문과 교육 부문의 평균 점수는 2014년부터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다가 2018년도에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경제활동·일자리 부문과 문화·여가 부문의 평균 점수는 매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지만, 꾸준한 상승세를 보이고 있다.
 - 정주생활기반, 환경·경관, 안전 부문의 평균 점수는 매년 다른 부문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 2014년과 2018년의 도·농간 만족도 차이를 살펴본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항목의 경우, 4개 문항 모두 2014년엔 도시민의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보다 큰 폭으로 높았으나, 2018년엔 차이의 폭이 크게 감소하거나 오히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도시민에 비해높아졌다.
 - 7대 정책 부문별 세부 항목의 경우,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상승하였다.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2014년에 비해 2018년에 비교적 큰 폭으로 상승하고 동시에 도·농간의 만족도 점수 차이도 큰 폭으로 감소한 세부 항목은 '여가 시설', '여가 프로그램', '생활 인프라', '생활 서비스', '주택 상태', '소득 기회'였다.
- 2014년과 2018년 조사 결과를 가지고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정주 만족도 차이를 확인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 연령별 만족도 조사 결과, 5년간 각 연령별로 만족도가 가장 많이 증가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이다. 2018년 조사에서 연령별로 가장 만족도 점

수가 낮은 항목을 살펴보면, 20~30대는 '평생학습 기회', '소득 기회'였고, 40~50대와 60대 이상 모두 '소득 기회'인 것으로 나타났다. 60대 이상과 20~30대 주민의 만족도 점수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교통 안전'으로, 60대 이상의 만족도가 더 높았다.

- 직업별 만족도 조사 결과, 5년간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 '여가 시설', '농외소득', '생활 인프라'였고, 그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은 '여가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했다. 2018년 조사에서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소득 기회', '여가 프로그램'이었고,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은 '소득 기회'가 가장 낮았다. 농림어업종사자와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소득 기회', '경제여건 향상', '농외소득', '에너지 비용 절감'이었다. 모두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 점수가 더 컸다.
- 귀농·귀촌 여부에 따른 만족도 조사 결과, 5년간 귀농·귀촌인의 만족도 가 크게 상승한 항목은 '여가 프로그램', '주택 상태', '여가 시설'이었고,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은 '여가 프로그램', '여가 시설'의 만족도가 크게 상승하였다.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소득 기회'였다.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간의 만족도 차이가 가장 큰 항목은 '생활 인프라'로,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더 낮았다.

2. 시사점

□ 도시 지역에 비해, 농어촌 지역에서의 정주 만족도 긍정적으로 변화

○ 전반적인 삶에 대해 도시민보다 농어촌 주민이 더 긍정적으로 인지하고 있다.

- 5년 전 조사 결과에선 도시민의 전반적인 삶에 대한 만족도가 농어촌 주민보다 현저히 높았으나,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결과가 역전되었다.
- 물론 '행복감', '거주하는 곳에서의 생활 만족감', '시·군 발전 전망'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도 하락 추세를 보이고 있으나, 도시민에 비해 그 하락 폭이 적었다. 특히 '마을 발전 전망'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상승하는 추세를 보이기도 한다. 2018년 주관적 웰빙 지수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의 지수가 도시민보다 높게 나타났다.
- 여전히 농어촌 주민 중 이주의향이 있는 응답자(50.4%) 중 과반수 이상이 도시로의 이주를 희망하고 있지만, 농어촌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인식이 도 시 지역에 비해 더 긍정적으로 변화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이러한 상황 속에서 앞으로 농어촌 지역이 주민들이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는 삶의 터전이 될 수 있도록 정주 여건을 개선하고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정책적 노력이 투입되어야 할 것이다.
- □ 도시와 농어촌 간의 의료 서비스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과, 농림 어업종사자 등 농어촌 주민 특성에 적합한 의료 서비스 제공 필요
- 보건·복지 부문은 농어촌 주민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정책 부문임에도 불구하고, 농어촌 지역의 해당 여건이 오히려 열악해지고 있다.
 - 보건·복지 부문은 7대 정책 부문 중 도·농간의 격차가 가장 클 뿐만 아니라 작년에 비해 그 격차도 가장 큰 폭으로 증가하였다. 또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도 작년에 비해 가장 크게 하락하였다.
- 특히 의료 서비스와 관련된 세부 항목의 도·농 격차가 클 뿐만 아니라 농어 촌 주민의 만족도도 하락하고 있다.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 여건을 개 선하여 도·농간의 격차를 해소하려는 노력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 '의료 서비스 접근성', '의료 서비스 수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는 7

대 정책 부문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도·농간의 만족도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 올해 처음 조사가 이루어진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항목 역시, 전체 세부 항목 중 두 번째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을 뿐만 아니라 도·농간의 격차도 상대적으로 컸다.
- 인구특성별 분석에서 보면, 20~30대의 젊은층, 농림어업종사자, 귀농·귀촌 인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 노인에 비해 20~30대의 젊은층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가 크게 낮았다. 이러한 결과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 서비스가 노인성 질환을 치료하는 데는 무리가 없으나, 젊은층에게 필요한 소아과, 산부인과 등과 관련한 의료 서비스는 도시에 비해 열악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젊은세대에게도 농어촌 지역이 삶의 터전이 될 수 있으려면, 이들에게 필요한 다양한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가야 할 것이다.
 - 또한 농림어업종사자의 의료 서비스에 대한 만족도는 그 외 직업을 가진 주민에 비해 크게 낮았다. 또한 전체 세부 항목 중에서 농림어업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였다. 농어촌 지역의 농업인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농업인 질환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있는 의료 서비스 개선도 필요하다.
 - 전체 세부 항목 중 귀농·귀촌인과 귀농·귀촌인이 아닌 주민간의 만족도 격차가 5년 사이에 커진 항목은 '의료 서비스 접근성'이었다. 이러한 결과는 도시에서의 생활을 경험한 귀농·귀촌인이 특히 농어촌 여건 중에서 의료 서비스 여건을 도시와 비교하여 열악하게 체감하고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
- □ 농어촌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과, 성인의 평생교육관련 서비스 확대 필요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학생교육과 관련된 항목의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는 작년에 비해 개선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의 격차가 크고, 특히 학부모 연령인 20~30대의 만족도는 4년 사이에 하락하기도 했다.
 - '학교 교육 여건'과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의 도·농간 만족도 차이의 폭은 작년에 비해 감소하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도 작년에 비해 상승하였다.
 - 하지만 여전히 도·농간 격차가 전체 세부 항목 중 큰 편에 속한다. 특히 작년에 개별 항목이었으나 올해부터 '학교 교육 여건'항목에 포함된 세부 문항인 '시설 및 교육 필요 장비', '통학의 편리성'에 대한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는 작년에 비해 큰 폭으로 하락했다.
 - 인구특성별 분석에서 보면, '학교 교육 여건', '방과 후 교육 기회' 항목에서 60대 이하 주민의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났다. 특히 '방과후 교육 기회' 항목에서 학부모 연령층인 20~30대의 만족도는 4년 사이에 하락하였다.
- 농어촌 지역에 거주하는 학생들이 도시에 거주하는 학생들과 동일한 환경 에서 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 환경을 개선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 특히 농어촌 지역의 학부모층의 교육관련 수요를 파악하여 그에 적합한 방향으로 방과 후 수업 확대, 통학 개선, 학교 시설 개선 등이 이루어져 야 한다.
 - 학생들의 교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지역 내의 다양한 분야의 기관이나 전문 인력과 연계하여 농어촌 지역에 부족한 직업 교육이나 사교육을 보 충하는 방식도 고려해볼만 하다. 하지만 올해 새롭게 추가된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항목의 농어촌 주민 만족도는 5.4점으로 낮은 편에 속한 다. 지역사회가 함께 노력한다면, 자원이 부족한 농어촌 지역에서도 교육 환경을 효과적으로 개선할 수 있을 것이다.
- 교육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낮은 항목은 '평생

학습 기회'였다. 특히 20~30대와 귀농·귀촌인의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귀농·귀촌인과 젊은 세대는 직업 교육이나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욕구가 큰 것으로 보인다. 이들이 받게 되는 평생교육은 경제활동과도 직결되는 만큼, 교육 이수 후에 경제활동에 있어서 활용도가 높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을 확충할 필요가 있다.

□ 농어촌 지역에 다양한 일자리와 소득원을 창출하려는 노력과, 청 년층 및 귀농·귀촌인 대상의 일자리 지원 정책 확대 필요

- 농어촌 주민들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 여건을 열악하게 평가하고 있으며, 특히 일자리 지원 정책에 대해 가장 부정적으로 평가하고 있었다.
 - 농어촌 주민의 경제활동·일자리 부문 만족도는 지속적으로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전체 부문 중 최저 점수를 유지하고 있다.
 - 특히 올해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일자리 지원', '청년 일자리 지원'은 전체 세부 항목 중 최저 점수를 기록하였다.
- 20~30대, 귀농·귀촌인, 농림어업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그룹은 농어촌 지역에 소득 기회가 현저히 부족하다고 평가하고 있다. 반면, 농림어업종사자들은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이 향상되었다고 평가하였다.
 - 인구통계적 특성에 따른 분석 결과, 20~30대, 귀농·귀촌인, 농림어업 외의 직업을 가진 주민그룹의 '소득 기회'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현저히 낮게 나타났다.
 - 반면, 농림어업 종사자의 경우, 다른 주민그룹에 비해 '농외소득' 항목에 대한 만족도가 5.6점으로 높게 나타났다. 해당 항목은 5년 사이에 농림어 업 종사자의 만족도가 가장 많이 향상된 항목이기도 하다.
- 농업인들의 농외소득을 창출할 수 있는 여건을 지속적으로 향상시키는 동 시에, 농업인 외의 농어촌 주민들이 활발한 경제활동을 할 수 있도록 농촌

자원을 활용한 다양한 소득원과 일자리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 특히 청년층과 귀농·귀촌인은 농어촌 지역의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어 줄 인적자원이다. 이들이 농어촌을 삶의 터전을 삼고 경제활동을 펼칠 수 있도록 이들을 대상으로 한 적극적인 일자리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

□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 개선 노력 필요

- 조사 결과, 농어촌 지역의 대중교통 여건은 크게 개선되지 못하고 있다.
 - 정주생활기반 부문의 세부 항목 중 '대중교통' 항목만이 도·농간의 격차 가 크고,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 점수는 작년에 비해 크게 하락하였다.
 - 또한 이주 의향에 대한 조사에서도 농어촌 주민이 이주하려는 가장 큰 이유가 '교통이 불편해서'로 조사되었다.
- 대중교통은 주민들이 기본적인 생활을 하는 데 필수적인 요건이라는 점에 서, 농어촌 지역 주민들이 불편하지 않게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여건 을 만들기 위한 노력이 지속되어야 한다.
 - 제3차 삶의 질 기본계획의 정책 사업인 '농어촌형 교통 모델 발굴 사업', '교통서비스 강화 사업' 등의 운영 현황을 점검하고 사업을 확대하는 등 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 주민 주도의 문화 공동체 활동 지원을 통한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 개선 필요

- 농어촌 지역의 문화·여가 여건이 향상되고 있으나, 여전히 다른 여건에 비해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낮다.
 - 문화·여가 부문은 7대 정책 부문 중 농어촌 주민의 만족도가 가장 가파르게 상승하고 있고, 도·농간의 격차도 가장 많이 감소하고 있다.
 - 그러나 여전히 7대 정책 부문 중 두 번째로 만족도 점수가 가장 낮고,

- 세부 항목들도 5점 초반대를 유지하고 있어 다른 항목들에 비해 낮다.
- 올해 조사에서 새롭게 추가된 항목인 '문화 공동체 활동'도 5.1점으로 전체 세부 항목 중 두 번째로 만족도가 낮게 나타났다.
- 도시에 비해 문화 시설 등의 인프라가 열악한 농어촌 지역에선 주민 주도의 문화 동호회 활동을 활성화 하는 것이 대안이 될 수 있다. 농어촌 주민이 즐겁게 살아갈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을 만들어가는 하나의 대안으로 문화 공동체 활동을 증진하는 것을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

부 록 1

2017년 정주 만족도 조사 농어촌 주민 조사 결과 보정

■ 농어촌 주민 표본에 대한 가중치 산출 및 부여

- 이 조사에서 사용한 조사 방법인 전화조사와 온라인 조사의 한계 때문에, 농어촌 지역의 모집단과 실제 조사된 표본 간에 차이가 존재할 수 있다. 모 집단과 표본 간의 차이를 줄여 농어촌 주민을 대표할 수 있는 조사 결과를 도출하고자 가중치를 산출하여 표본을 보정하였다.
- 실제 조사된 14개 시·도별 읍·면 인구의 연령대 비율을, 행정안전부의 주민 등록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조사 시점의 14개 시·도별 읍·면 인구의 연령 대 비율로 보정하는 방식으로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먼저, 행정안전부의 주민등록부 인구통계를 기준으로 도시 지역(동 지역) 만 있는 서울, 광주, 대전을 제외한 14개 시·도의 읍·면 지역에 거주하는 주민의 연령대별 모집단과 전체 농어촌 주민수 대비 비율을 산정하였다.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수〉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16,663	28,562	26,829	20,864	29,909	122,827
대구	27,957	34,914	35,922	33,800	35,010	167,603
인천	9,652	8,190	11,353	16,975	32,158	78,328
울산	28,957	30,014	40,654	36,814	38,417	174,856
세종	13,385	12,960	14,900	16,015	24,520	81,780
경기	272,954	302,634	357,222	354,045	452,572	1,739,427
강원	78,071	65,242	86,508	115,695	186,755	532,271
충북	73,415	79,402	93,793	112,116	183,295	542,021
충남	128,690	139,168	168,144	189,776	343,124	968,902
전북	57,408	52,257	73,909	98,017	214,133	495,724
전남	113,478	109,410	148,590	183,047	376,083	930,608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경북	136,596	131,259	176,320	227,547	427,549	1,099,271
경남	127,116	142,277	176,612	200,615	340,557	987,177
제주	20,169	20,299	29,445	30,306	47,393	147,612
합계	1,104,511	1,156,588	1,440,201	1,635,632	2,731,475	8,068,407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모집단 비율〉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0.21%	0.35%	0.33%	0.26%	0.37%	1.52%
대구	0.35%	0.43%	0.45%	0.42%	0.43%	2.08%
인천	0.12%	0.10%	0.14%	0.21%	0.40%	0.97%
울산	0.36%	0.37%	0.50%	0.46%	0.48%	2.17%
세종	0.17%	0.16%	0.18%	0.20%	0.30%	1.01%
경기	3.38%	3.75%	4.43%	4.39%	5.61%	21.56%
강원	0.97%	0.81%	1.07%	1.43%	2.31%	6.60%
 충북	0.91%	0.98%	1.16%	1.39%	2.27%	6.72%
 충남	1.59%	1.72%	2.08%	2.35%	4.25%	12.01%
전북	0.71%	0.65%	0.92%	1.21%	2.65%	6.14%
 전남	1.41%	1.36%	1.84%	2.27%	4.66%	11.53%
 경북	1.69%	1.63%	2.19%	2.82%	5.30%	13.62%
 경남	1.58%	1.76%	2.19%	2.49%	4.22%	12.24%
제주	0.25%	0.25%	0.36%	0.38%	0.59%	1.83%
합계	13.69%	14.33%	17.85%	20.27%	33.85%	100.00%

- 두 번째로, 실제 조사된 14개 시·도의 연령대 사례수와 비율을 산정하여 모집단과 비교하였다.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수〉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0	1	1	0	0	2
대구	0	3	2	2	0	7
인천	0	1	0	3	10	14
울산	2	0	1	0	0	3
세종	3	0	0	0	2	5
경기	87	217	198	75	35	612
강원	18	36	42	23	58	177
충북	25	40	47	17	34	163
충남	26	70	62	27	33	218
전북	9	33	20	33	39	134
전남	21	50	48	17	40	176
경북 경북	26	61	58	32	35	212
경남	25	81	72	35	28	241
제주	6	10	9	1	1	27
합계	248	603	560	265	315	1991

						.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0.00%	0.05%	0.05%	0.00%	0.00%	0.10%
대구	0.00%	0.15%	0.10%	0.10%	0.00%	0.35%
인천	0.00%	0.05%	0.00%	0.15%	0.50%	0.70%
울산	0.10%	0.00%	0.05%	0.00%	0.00%	0.15%
 세종	0.15%	0.00%	0.00%	0.00%	0.10%	0.25%
 경기	4.37%	10.90%	9.94%	3.77%	1.76%	30.74%
강원	0.90%	1.81%	2.11%	1.16%	2.91%	8.89%
 충북	1.26%	2.01%	2.36%	0.85%	1.71%	8.19%
충남	1.31%	3.52%	3.11%	1.36%	1.66%	10.95%
 전북	0.45%	1.66%	1.00%	1.66%	1.96%	6.73%
 전남	1.05%	2.51%	2.41%	0.85%	2.01%	8.84%
 경북	1.31%	3.06%	2.91%	1.61%	1.76%	10.65%
 경남	1.26%	4.07%	3.62%	1.76%	1.41%	12.10%
제주	0.30%	0.50%	0.45%	0.05%	0.05%	1.36%
합계	12.46%	30.29%	28.13%	13.31%	15.82%	100.00%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조사된 표본 비율〉

- 세 번째로, 실제 조사된 비율이 모집단 비율을 따를 수 있도록 보정 가중 치를 다음과 같이 산출하였다.
- * 가중치 산출식: 가중치 = 조사 표본의 비율 / 모집단 비율

〈행정 구역별 농어촌 지역(읍면 지역)의 보정 가중치〉

행정 구역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합계
부산	_	_	_	_	_	15.155
대구	-	_	_	_	_	5.908
인천	-	_	-	_	_	1.381
울산	-	_	_	_	_	14.383
세종	_	_	_	_	_	4.036
경기	0.774	0.344	0.445	1.165	3.191	
강원	1.070	0.447	0.508	1.241	0.795	. –
충북	0.725	0.490	0.492	1.627	1.330	. –
충남	1.221	0.491	0.669	1.734	2.566	
전북	1.574	0.391	0.912	0.733	1.355	
전남	1.333	0.540	0.764	2.657	2.320	
경북	1.296	0.531	0.750	1.755	3.014	
 경남	1.255	0.433	0.605	1.414	3.001	
제주	0.830	0.501	0.807	7.478	11.695	
합계	-	-	-	-	-	1.000

- 보정 가중치 산출 시 부산과 대구, 인천, 울산, 세종 지역은 연령대별 조사가 되지 않은 셀이 존재하여 해당 지역의 전체 모집단 비율과 전체 조

사된 표본수 비율을 가지고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 반면, 연령대별 조사가 된 지역은 해당 연령대의 모집단 비율과 조사된 표본수 비율을 토대로 보정 가중치를 산출하였다.

〈가중치 부여 전과 후의 농어촌 지역 주민 표본 변화〉

		사리	계수	비율	€(%)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가중치 부여 전	가중치 부여 후
전체		1,991	1,991	100.0	100.0
	인천/경기	971	780	48.8	39.2
	대전/충청	227	224	11.4	11.3
기즈 TIG	광주/전라	181	168	9.1	8.4
거주 지역	대구/경북	188	266	9.4	13.3
	부산/울산/경남	424	554	21.3	27.8
	강원/제주	626	449	31.4	22.5
	19~29세	386	393	19.4	19.7
	30대	310	352	15.6	17.7
연령대	40대	219	313	11.0	15.7
	50대	246	317	12.4	15.9
	60대 이상	204	168	10.2	8.4

■ 보정된 2017년 정주만족도 조사 결과

〈2017년 농어촌 주민의 조사 응답자 특성〉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전체	1991	100		전체	1,991	100.0
	서울	0	0		무학	61	3.1
	인천·경기	449	22.5		초졸·중졸	414	20.9
ᄁᅜ	대전·충청	393	19.7	교육	고졸	435	21.9
거주 지역	광주·전라	352	17.7	수준	대졸	955	48.2
시역	대구·경북	313	15.7		대학원 이상	117	5.9
	부산·울산·경남	317	15.9		모름·무응답	0	0
	강원·제주	168	8.4	7171	좋음	746	37.4
ИН	남성	968	48.6	건강 상태	보통	740	37.2
성별	여성	1,023	51.4	641	나쁨	505	25.4
	19~29세	290	14.5		만족	902	45.6
	30대	291	14.6	가정 생활	보통	817	41.3
	40대	365	18.3	만족도	불만족	261	13.2
연령대	50대	389	19.5		모름·무응답	0	0
	001110111	OF C	22.0	가족	독신 가구	262	13.2
	60세이상	656	33.0	구성	1세대 가구	621	31.2

	구분	사례수	%		구분	사례수	%
	10년 미만	766	38.5		2세대 가구	910	45.7
기조	10~19년	387	19.4		3세대 가구	138	6.9
거주 기간	20~29년	231	11.6		조손 가구	8	0.4
기간	30~39년	147	7.4		기타	51	2.5
	40년 이상	460	23.1	귀농·귀촌	임	301	15.1
혼인	기혼	1,527	76.7	여부	없음	1,690	84.9
상태	미혼	464	23.3		농업·임업·어업	389	19.6
	1000만 원미만	458	24.0		자영업	148	7.4
연간	1000만 원대	228	11.9		사무·관리직	600	30.1
가구	2000만 원대	278	14.6	TIO	생산·기능·노무	205	10.3
소득	3000만 원대	302	15.8	직업	주부	322	16.2
	4000만 원 이상	644	33.7		학생	44	2.2
					무직·퇴직	32	1.6
					기타	250	12.6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현재 행복감	살고 있는 곳에서의 만족감	마을 발전 전망	시·군 발전 전망
도시지역(동) n=1,039	6.2	6.3	6.7	6.8
	6.2	6.3	6.1	6.5
도농 차이 (농어촌-도시)	0	0	-0.6	-0.3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주관적 웰빙 지수〉

(10점 척도)

	1.귀하는요 즘자신의삶 에대해전반 적으로얼마 나만족하고 있습니까?	2.귀하는어 제어느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 까?	3.귀하는어 제어느정도 근심또는걱 정을하셨습 니까?	4.귀하는어 제어느정도 우울하셨습 니까?	5.귀하는요 즘자신이하 고있는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가치 있다고생각 하십니까?	전체평균 (3번,4번 문항 역코딩)
도시지역(동)	6.1	6.3	6	5.3	6.2	5.5
농어촌 지역 (읍·면)	6	6.2	5.5	4.6	6	5.6
도농차이	-0.1	-0.1	-0.5	-0.7	-0.2	0.1

〈2017년 7대 부문 세부 항목별 만족도 조사 결과〉

(10점 척도)

				(10점 석노)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차이 (농어촌- 도시)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7.6	6.5	-1.1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 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7.3	5.9	-1.4
	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된다	6.7	5.7	-1.0
보건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된다	6.5	6.0	-0.5
•	응급 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 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7.1	6.0	-1.1
복지		7.1	0.0	-1.1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6.6	5.8	-0.8
	이용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0.0	
	(평균)	7.0	6.0	-1.0
	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 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6.8	5.7	-1.1
	학생들이 방과 후 교육, 각종 보습 학원, 예체능 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6.9	5.6	-1.3
70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6.6	5.5	-1.1
교육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	7.0	0.0	0.7
	어져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7.0	6.3	-0.7
	학생들이 통학하는 데 어려움이 없다. (2017년 신규 문항)	7.1	6.2	-0.9
	(평균)	6.9	5.9	-1.0
	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6.8	6.6	-0.2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 인프라가 양호하다	7.2	6.3	-0.9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 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7.4	6.4	-1.0
정주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7.3	6.0	-1.3
생활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7.7	6.9	-0.8
기반	주민들이 마을 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5.7	5.8	0.1
	(2017년 신규 문항)	7.0	0.0	
	(평균)	7.0	6.3	-0.7
경제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6.0	5.0	-1.0
항지 활동	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6.0	5.3	-0.7
= 6 · 일자리	농업과 농어촌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어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5.8	5.0	-0.8
크시니	(평균)	5.9	5.1	-0.8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6.7	5.1	-1.6
문화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 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6.6	4.8	-1.8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2017년 신규 문항)	6.3	5.2	-1.1
여가	(평균)	6.5	5.0	-1.5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6.7	6.3	-0.4
환경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6.3	5.3	-1.0
·	쓰레가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6.5	6.2	-0.3
경관	(평균)	6.5	5.9	-0.6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6.8	6.8	0.0
	교통 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6.6	6.5	-0.1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7.2	7.0	-0.2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7.2	6.7	-0.5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 환경을 가지고 있다. (농업종사자만 조사)	7.2	6.2	-1.0
	(평균)	7.0	6.6	-0.4

부 록 2

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문항 개편 내용

부	년 변경 조사 설문 문항 내용 설문 문항		특이 사항				
전반적인 삶의 만족도		추가 항목	마을 발전 정도	우리 마을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	2015년 복지실태조사 참고		
7 정부 펼 싦 질 연 에 대 만 도	보건· 복지		아동 양육·보호 지원	[2017년]아이들을 위한 양육보호가 잘 지원 된다. → [2018년]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취약계층 복지 지원	[2017년]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가 잘 지원 된다. → [2018년]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 서 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추가 항목	산부인과 의료 서비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중점 추진과제 설문조사 중 〈분만취약지역 지정 확대 및 혜택 강화〉참고		
	교육	수정	방과 후 교육 기회	[2017년]학생들이 방과후 교육, 각종보습학원, 예체능학원 등 학교 정규 과정 외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학생들이 방과 후에도 좋은 교육(학교 방과 후 교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항목		평생학습 기회	[2017년]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평생학습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 분하다.	
		추가 항목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문항 세분화	학교 교육 여건	[2017년]학생들이 좋은 수준의 학교교육(공교육)을 받을 수 있다. → [2018년]지역 학교(초/중/고)의 ()에 대해 만족한다. ① 교사 전문성(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② 학생들의 성취수준 ③ 학교 시설 ④ 통학의 편리성	국민 삶의 질 지표(교육 -학부모 학교 교육 만족도) 참고		

부문	변경 사항	조사 내용	설문 문항	특이 사항
	〈삭제 문항〉	-	학생들이 통학하는데 어려움이 없다. 학교 시설이 낙후되어 있지 않고, 교육에 필요한 장비 (컴퓨터, 프로젝터 등)가 잘 갖추어져 있다.	학교 교육 여건' 문항에 해당 내용 포함되어 기존 문항에서 삭제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2017년]주택 상태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 [2018년]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① 규모가 적당하다.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③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2017년 복지실태조사의 기초 생활 여건 〈주택에 대한 만족도〉참고
)동 · !자	경제 여건 향상	[2017년]최근 1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 반적으로 좋아졌다. → [2018년]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경제 활동 ·		농외소득	[2017년]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판매, 농 촌관광 등 다양한 소득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 [2018년]농산물 가공판매, 농촌체험 및 관광, 농가식 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자원을 활용한 소 득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농어촌 주민에게만 설문 조사 진행
일자 리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 루어지고 있다.	현 정권의 국정과제 중 〈성별 연령별 맞춤형 일 자리 지원〉참고
		청년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 설문조사 중 〈청년 영농 활동 지 원 확대, 청년의 농업 외 일자리 창출 및 고용 지원〉참고
문화 ·	수정 항목	향토문화 향유	[2017년]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전통문화를 접할 수 있다. → [2018년]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여가	추가 항목	문화 공동체 활동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 공동체 활동을 활발 히 하고 있다.	중점 추진과제 설문조사 중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민 문화공동체 활동 지원〉참고
안전	추가 항목	안전시설 및 설비	우범지역 및 사고 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2015년 복지실태조사의 〈마을 안전시설/설비에 대한 인식〉참고
응답자 개인 및 가구 특성	추가 항목	귀농·귀촌 여부	귀농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촌하셨습니까? ① 귀농 ② 귀촌	

부 록 3

2014~2018년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종합

〈2014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11점 적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보건	의료 서비스 접근성	7.7	5.2	-2.5
	아동 양육·보호 지원	5.9	4.8	-1.1
•	취약계층 복지 지원	5.7	5.2	-0.5
복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6.7	5.3	-1.4
	(평균)	6.5	5.1	-1.4
	학교 교육 여건	6.5	4.8	-1.7
교육	평생학습 기회	5.8	4.2	-1.6
	(평균)	6.2	4.5	-1.7
	주택 상태	6.7	5.3	-1.4
정주	생활 인프라	7.3	4.5	-2.8
생활	생활 서비스	7.5	4.5	-3.0
기반	대중교통	7.6	4.9	-2.7
	(평균)	7.3	4.8	-2.5
	소득 기회	5.4	3.7	-1.7
경제활동	경제여건 향상	5.1	4.0	-1.1
일자리	농외소득	4.4	3.9	-0.5
	(평균)	5.0	3.9	-1.1
 문화	여가시설	6.0	3.3	-2.7
	여가 프로그램	5.9	2.5	-3.4
여가	(평균)	6.0	2.9	-3.1
 환경	정돈된 환경경관	6.3	5.2	-1.1
•	적은 환경오염	6.4	5.4	-1.0
경관	(평균)	6.4	5.3	-1.1
	범죄 안전	6.4	6.1	-0.3
안전	교통 안전	6.2	5.7	-0.5
건건	자연재해 안전	6.9	5.8	-1.1
	(평균)	6.5	5.9	-0.6
	〈표본수〉	〈610명〉	〈1,168명〉	-

〈2015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10점 적도)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2	-1.4
	의료 서비스 수준	7.1	5.8	-1.3
보건	아동 양육·보호 지원	6.5	5.6	-0.9
복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7.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9	-1.1
	(평균)	6.9	5.9	-1.0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	6.8	5.5	-1.3
业书	평생학습 기회	6.5	5.3	-1.2
	(평균)	6.7	5.5	-1.2
	주택 상태	6.9	6.5	-0.4
정주	생활 인프라	7.1	5.8	-1.3
생활	생활 서비스	7.4	6.1	-1.3
기반	대중 교통	7.3	5.7	-1.6
	(평균)	7.2	6.0	-1.2
	소득 기회	5.6	4.6	-1.0
경제활동	경제여건 향상	5.7	4.9	-0.8
일자리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6	4.8	-0.8
 문화	여가시설	6.3	4.8	-1.5
	여가프로그램	6.2	4.6	-1.6
여가	(평균)	6.3	4.7	-1.6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환경 ·	에너지 비용 절감	6.0	5.0	-1.0
경관	적은 환경오염	6.5	6.4	-0.1
	(평균)	6.4	5.9	-0.5
	범죄 안전	6.5	6.7	0.2
안전	교통 안전	6.4	6.3	-0.1
건건	자연재해 안전	7.2	6.8	-0.4
	(평균)	6.7	6.6	-0.1
	〈표본수〉	〈1,269명〉	〈1,775명〉	-

〈2016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7.8	6.4	-1.4
	의료 서비스 수준	7.4	5.9	-1.5
보건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5	-1.1
· 복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6.0	-0.4
7/1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2	6.0	-1.2
	(평균)	7.1	6.0	-1.1
	학교 교육 여건	6.8	5.6	-1.2
70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3	-1.6
교육	평생학습 기회	6.6	5.2	-1.4
	(평균)	6.8	5.4	-1.4
	주택 상태	6.8	6.4	-0.4
	생활 인프라	7.3	6.1	-1.2
정주	생활 서비스	7.5	6.0	-1.5
생활 기반	대중 교통	7.6	5.8	-1.8
	통신 시설	7.8	6.7	-1.1
	(평균)	7.4	6.2	-1.2
	소득 기회	5.9	4.8	-1.1
경제활동	경제여건 향상	5.9	4.9	-1.0
일자리	농외소득	5.4	4.8	-0.6
	(평균)	5.7	4.8	-0.9
문화	여가시설	6.6	4.8	-1.8
	여가프로그램	6.5	4.5	-2.0
여가	(평균)	6.6	4.7	-1.9
	정돈된 환경경관	6,6	6,2	-0.4
환경 ·	에너지 비용 절감	6.1	5.1	-1.0
· 경관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02	(평균)	6.4	5.8	-0.6
	범죄 안전	6.8	6.7	-0.1
	교통 안전	6.6	6.4	-0.2
안전	자연재해 안전	7.3	7.0	-0.3
건선	화재 발생 대응	7.1	6.4	-0.7
	농작업 안전	6.7	5.9	-0.8
	(평균)	6.9	6.5	-0.4
	〈표본수〉	〈917명〉	〈1,950명〉	-

〈2017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0점 척도)

				(10점 척도)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7.6	6.5	-1.1
	의료 서비스 수준	7.3	5.9	-1.4
보건	아동 양육·보호 지원	6.7	5.7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5	6.0	-0.5
복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1	6.0	-1.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6	5.8	-0.8
	(평균)	7.0	6.0	-1.0
	학교 교육 여건	6.8	5.7	-1.1
	방과 후 교육 기회	6.9	5.6	-1.3
교육	평생학습 기회	6.6	5.5	-1.1
业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	7.0	6.3	-0.7
	학생 통학 어려움	7.1	6.2	-0.9
	(평균)	6.9	5.9	-1.0
	주택 상태	6.8	6.6	-0.2
	생활 인프라	7.2	6.3	-0.9
정주	생활 서비스	7.4	6.4	-1.0
생활	대중 교통	7.3	6.0	-1.3
기반	통신 시설	7.7	6.9	-0.8
	공동체 활동	5.7	5.8	0.1
	(평균)	7.0	6.3	-0.7
	소득 기회	6.0	5.0	-1.0
경제활동	경제여건 향상	6.0	5.3	-0.7
일자리	농외소득	5.8	5.0	-0.8
2/14	(평균)	5.9	5.1	-0.8
	여가시설	6.7	5.1	-1.6
문화	여가 프로그램	6.6	4.8	-1.8
· 여가	향토문화 향유	6.3	5.2	-1.1
	(평균)	6.5	5.0	-1.5
=1-1	정돈된 환경경관	6.7	6.3	-0.4
환경 ·	에너지 비용 절감	6.3	5.3	-1.0
경관	적은 환경오염	6.5	6.2	-0.3
00	(평균)	6.5	5.9	-0.6
	범죄 안전	6.8	6.8	0.0
	교통 안전	6.6	6.5	-0.1
F40	자연재해 안전	7.2	7.0	-0.2
안전	화재 발생 대응	7.2	6.7	-0.5
	농작업 안전	7.2	6.2	-1.0
	(평균)	7.0	6.6	-0.4
	〈표본수〉	〈1,039명〉	〈1,991명〉	-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삶의 질 여건 만족도 결과〉

(11점 척도)

				(11점 석노)
부문	세부 항목	도시 지역	농어촌 지역	도·농간 차이 (농아촌 지역-도시 지역)
	의료 서비스 접근성	7.3	6.1	-1.2
	의료 서비스 수준	7.1	5.6	-1.5
보건 -	아동 양육·보호 지원	6.6	5.6	-1.0
	취약계층 복지 지원	6.4	5.7	-0.7
복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7.0	5.5	-1.5
=71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6.4	5.6	-0.8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6.5	5.1	-1.4
	(평균)	6.8	5.6	-1.2
	학교 교육 여건	6.5	5.7	-0.8
	방과 후 교육 기회	6.5	5.7	-0.8
	평생학습 기회	6.0	5.3	-0.7
교육	시설 및 교육 필요장비(평균 산출시 제외)	6.5	5.8	-0.7
	학생 통학 어려움(평균 산출시 제외)	6.8	5.8	-1.0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6.0	5.4	-0.6
	(평균)	6.3	5.5	-0.8
	주택 상태	6.6	6.6	0.0
	생활 인프라	7.0	6.3	-0.7
정주	생활 서비스	7.1	6.2	-0.9
생활	대중 교통	7.1	5.7	-1.4
기반	통신 시설	7.5	6.7	-0.8
	공동체 활동	6.2	5.9	-0.3
	(평균)	6.9	6.2	-0.7
	소득 기회	5.6	5.1	-0.5
겨제하도	경제여건 향상	5.6	5.2	-0.4
경제활동 -	농외소득	-	5.2	-
일자리	일자리 지원	5.6	5.1	-0.5
월시디 [청년 일자리 지원	5.4	5.0	-0.4
	(평균)	5.6	5.1	-0.5
	여가시설	6.2	5.4	-0.8
문화	여가프로그램	6.1	5.3	-0.8
	향토문화 향유	6.2	5.6	-0.6
여가	문화 공동체 활동	5.6	5.1	-0.5
	(평균)	6.0	5.4	-0.6
하건	정돈된 환경경관	6.4	6.1	-0.3
환경 - · _	에너지 비용 절감	5.9	5.6	-0.3
	적은 환경오염	6.3	5.9	-0.4
경관 -	(평균)	6.2	5.9	-0.3
	범죄 안전	6.7	6.6	-0.1
	교통 안전	6.4	6.3	-0.1
	자연재해 안전	7.1	6.6	-0.5
안전	화재 발생 대응	7.0	6.3	-0.7
	농작업 안전	6.7	6.1	-0.6
	안전시설 및 설비	6.7	6.0	-0.7
	(평균)	6.8	6.3	-0.5
	〈표본수〉	〈949명〉	〈2,203명〉	-

부 록 4

2014년과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결과 비교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농어촌 주민	2018년 농어촌 주민	농어촌 지역 증감 ('18년-'14년)
	의료 서비스 접근성	5.2	6.1	0.9
	의료 서비스 수준	-	5.6	-
H 7J	아동 양육·보호 지원	4.8	5.6	0.8
보건	취약계층 복지 지원	5.2	5.7	0.5
복지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3	5.5	0.2
숙시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	5.6	-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	5.1	-
	(평균)	5.1	5.6	0.5
	학교 교육 여건	4.8	5.7	0.9
	방과 후 교육 기회	-	5.7	=
교육	평생학습 기회	4.2	5.3	1.1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	5.4	=
	(평균)	4.5	5.5	1.0
	주택 상태	5.3	6.6	1.3
	생활 인프라	4.5	6.3	1.8
정주	생활 서비스	4.5	6.2	1.7
생활	대중 교통	4.9	5.7	0.8
기반	통신 시설	_	6.7	-
	공동체 활동	5.4	5.9	0.5
	(평균)	4.8	6.2	1.4
	소득 기회	3.7	5.1	1.4
거피하다	경제여건 향상	4.0	5.2	1.2
경제활동	농외소득	3.9	5.2	1.3
OITLI	일자리 지원	-	5.1	-
일자리	청년 일자리 지원	-	5.0	-
	(평균)	3.9	5.1	1.2
	여가시설	3.3	5.4	2.1
문화	여가프로그램	2.5	5.3	2.8
	향토문화 향유		5.6	-
여가	문화 공동체 활동	_	5.1	-
	(평균)	2.9	5.4	2.5
	정돈된 환경경관	5.2	6.1	0.9
환경 ·	에너지 비용 절감	_	5.6	-
	적은 환경오염	5.4	5.9	0.5
경관	(평균)	5.3	5.9	0.6

부문	세부 항목	2014년 농어촌 주민	2018년 농어촌 주민	농어촌 지역 증감 ('18년-'14년)
	범죄 안전	6.1	6.6	0.5
	교통 안전	5.7	6.3	0.6
	자연재해 안전	5.8	6.6	0.8
안전	화재 발생 대응	-	6.3	-
	농작업 안전	ı	6.1	-
	안전시설 및 설비	-	6.0	-
	(평균)	5.9	6.3	0.4

부 록 5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정주 만족도 분석 결과

〈2014년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정주 만족도 분석 결과〉

(11점 척도)

		연령별		직역	겁별	귀농·-	귀농·귀촌 여부	
부문	세부 항목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공입 왕 왕 종	그 외 직업	귀농 귀촌 인	아님
	의료 서비스 접근성	5.4	5.3	5.1	5.0	5.4	4.6	5.3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2015년)	5.7	5.7	6.1	5.6	5.9	5.3	5.9
•	아동 양육·보호 지원	4.8	4.9	4.7	4.7	4.9	4.6	4.8
복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4.8	5.3	5.3	5.3	5.2	4.9	5.3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4.4	5.3	5.5	5.3	5.3	4.6	5.4
	학교 교육 여건	4.8	4.8	4.8	4.6	5.0	4.4	4.8
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2015년)	5.7	5.5	5.2	5.0	5.7	5.2	5.6
	평생학습 기회	3.9	4.1	4.2	3.9	4.4	4.0	4.2
	주택 상태	5.5	5.4	5.2	5.1	5.5	4.4	5.4
정주	생활 인프라	5.5	4.4	4.4	4.1	4.9	3.9	4.6
생활 기반	생활 서비스	5.0	4.6	4.3	4.0	4.9	3.7	4.5
	대중 교통	4.2	4.9	5.1	4.8	5.0	4.3	5.0
	소득 기회	3.8	4.1	3.5	3.7	3.8	3.7	3.8
경제활동· 일자리	경제여건 향상	4.3	3.9	3.9	3.8	4.2	3.6	4.0
2/14	농외소득	4.5	4.0	3.7	3.5	4.2	3.8	3.9
 문화	여가시설	4.1	3.6	2.9	2.8	3.8	2.8	3.3
여가	여가프로그램	3.0	3.0	2.2	2.1	2.9	2.2	2.6
 환경	정돈된 환경경관	5.5	5.3	5.0	5.1	5.3	4.7	5.2
	에너지 비용 절감(2015년)	5.4	5.0	4.9	4.5	5.3	4.6	5.1
경관 	적은 환경오염	5.8	5.4	5.2	5.2	5.5	4.7	5.4
	범죄 안전	6.0	6.0	6.2	6.0	6.2	5.5	6.2
안전	교통 안전	5.4	5.6	5.8	5.6	5.7	5.5	5.7
	자연재해 안전	5.6	5.9	5.7	5.6	5.9	5.2	5.8
	(표본수)	(165)	(348)	(655)	(541)	(627)	(98)	(1,070)

〈2018년 농어촌 주민의 인구통계적 특성별 정주 만족도 분석 결과〉

(11점 척도)

			연령별		직	업별	귀농·귀촌 여부		
부문	세부 항목	20~ 30대	40~ 50대	60대 이상	농림 어업 종사	그 외 직업	귀농 귀촌 인	아님	
	의료 서비스 접근성	5.7	6.0	6.5	5.9	6.2	5.3	6.2	
보건	의료 서비스 수준	5.2	5.5	5.9	5.5	5.6	5.1	5.6	
	아동 양육·보호 지원	5.2	5.6	6.0	5.7	5.6	5.3	5.6	
복지	취약계층 복지 지원	5.2	5.6	6.1	6.0	5.6	5.5	5.7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5.1	5.3	5.9	5.5	5.5	5.2	5.5	
	학교 교육 여건	5.4	5.6	6.2	6.0	5.7	5.3	5.8	
교육	방과 후 교육 기회	5.4	5.5	6.1	5.9	5.7	5.2	5.8	
	평생학습 기회	4.9	5.2	5.8	5.6	5.2	5.0	5.4	
	주택 상태	6.4	6.5	6.8	6.8	6.5	6.6	6.6	
정주 생활	생활 인프라	6.3	6.3	6.5	6.1	6.4	5.5	6.5	
생활 기반	생활 서비스	6.0	6.2	6.3	5.9	6.2	5.5	6.3	
	대중 교통	5.3	5.7	6.2	5.9	5.7	5.3	5.8	
경제활동	소득 기회	4.9	5.0	5.3	5.5	5.0	4.7	5.2	
•	경제여건 향상	5.0	5.1	5.4	5.6	5.1	5.0	5.2	
일자리	농외소득	5.0	5.1	5.5	5.6	5.1	4.9	5.2	
 문화	여가시설	5.0	5.3	5.8	5.6	5.3	4.8	5.4	
여가	여가프로그램	5.0	5.1	5.8	5.5	5.3	5.0	5.4	
<u></u> 환경	정돈된 환경경관	5.7	6.1	6.4	6.3	6.1	5.9	6.1	
	에너지 비용 절감	5.2	5.4	6.0	6.0	5.5	5.3	5.6	
경관	적은 환경오염	5.4	5.8	6.4	6.2	5.8	5.7	5.9	
	범죄 안전	6.0	6.5	7.0	6.8	6.5	6.2	6.6	
안전	교통 안전	5.7	6.2	6.8	6.6	6.2	6.3	6.3	
	자연재해 안전	6.1	6.6	7.0	6.8	6.6	6.4	6.7	
	(표본수)	(592)	(824)	(787)	(403)	(1,800)	(249)	(1,954)	

부 록 6

2018년 도시 및 농어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조사 조사표

안녕하십니까?

본 조사는 농촌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개발 정책의 효과적 추진을 위해, 도시와 농촌 주민의 삶의 질 만족도를 파악하기 위한 것입니다.

각 질문들은 맞고 틀리는 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귀하의 여건이나 평소 생각하시는 바에 따라 솔직히 답해주시면 됩니다. 답해 주신 내용은 연구를 위해서만 통계 처리 될 것 이며, 연구 외 다른 목적으로 사용되지 않습니다.

바쁘시더라도 잠시 시간을 내어주신다면 우리나라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본 연구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감사합니다.

> 2018년 10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장 김 창 길

※ 유은영 연구원(① 061-820-0000)

- * 본 조사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서 농림축산식품부의 연구용역으로 수행하고 있는 "삶의 질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과제의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 삶의 질 향상 위원회는 정부 13개 부처가 함께 참여하고 국무총리가 위원장을 맡고 있는 범정 부 조직입니다.

	귀하께서는 어느 지역에	1	서울	2	부산	3	대구	4	인천	(5)	광주	6	대전
LOC		7	울산	8	세종	9	경기	10	강원	1	충북	12	충남
	거주하십니까?	13	전북	14)	전남	(15)	경북	16	경남	17)	제주	18	포항
SEX	귀하의 성별은 무엇입니까?	1	남	2) 여								
	귀하의 연령은 만으로	1	19~29)세	② 30)대	3 4	0대	4) 5	60대	⑤ 6	0대	이상
AGE	어떻게 되십니까?	u	만 19		미만								
	1 8/11 4 11 11/11		<u>t</u> ())	∜ (₩	만	19세	이싱	만 응	답)			

Q01.	지금 살고 계신 곳 은 0	H디입니까?		
()시·도 ()시·군 ()읍•면/동 ()리(행정리)
Q02.	현재의 마을에 <u>사신지는</u>	<u>- 얼마나</u> 되셨습니까?	(년)	

Q03. [주관적 웰빙지수] 다음은 전반적인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u>1~10점까지 점수</u>를 매겨 주십시오.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귀하는 요즘 자신의 삶에 대해 전반적으로 얼마나 만족하고 있습니까?	①⑤ 10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행복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⑤ 10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근심 또는 걱정을 하셨습니까?	①⑤ ⑩	()점
귀하는 어제 어느 정도 우울하셨습니까?	①⑤ ⑩	()점
귀하는 요즘 자신이 하고 있는 일이 전반적으로 얼마나 가치있다고 생각하십니까?	①⑤ ⑩	()점

Q04. 다음은 지역에서의 삶에 대한 귀하의 생각을 묻는 질문입니다.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1~10점까지 점수를 매겨 주십시오.

구분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 그렇다	점수
[행복감]	나는 지금 행복하다.	(i)(i) (ii)	()점
[지역에서의 생활 만족도]	나는 지금 살고있는 곳에서의 생활에 만족한다.	①⑤ ⑩	()점
[마을 발전 정도]	우리 마을은 전반적으로 발전하였다.	①⑤ ⑩	()점
[마을 발전 전망]	우리 마을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i)(i) (ii)	()점
[시군 발전 전망]	우리 사군은 앞으로 더 발전할 것이다.	①⑤ ⑩	()점

Q05. 다음은 살고계신 지역의 생활여건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실 때, 동의하는 정도에 따라 <u>1~10점까지 점수</u>를 매겨 주십시오.

※ '지역'은 살고있는 '마을'을 중심으로 거주 '시·군'까지의 범위를 의미합니다.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그렇다
	[의료 서비스 접근성]	필요할 때 병의원이나 약국을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u> </u>
보건· 복지	[의료 서비스 수준]	지역에서 이용 가능한 의료서비스의 범위(종류)와 수준이 양호하다.	<u> </u>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아동 양육보호 지원]	아동의 양육보호를 위한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u> </u>
	[취약계층 복지 지원]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복지서비스 지원이 잘 이루어진다.	<u> </u>
	[신속한 응급의료 서비스]	응급상황 발생 시 신속하게 응급의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u> </u>
	[복지 서비스 이용 편의성]	노인 돌봄, 보육 등의 다양한 복지서비스에 대한 정보를 쉽게 얻을 수 있고,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u> </u>
	[산부인과 의료서비스]	임신 및 출산과 관련한 의료서비스를 어렵지 않게 이용할 수 있다.	<u> </u>
교육	[학교 교육 여건]	지역 학교(초/중/고)의 ()에 대해 만족한다. ①교사 전문성 (교육방법, 면학분위기 조성, 학생관리 등) ②학생들의 성취수준 ①⑪ ③학교시설 ①⑪ ④통학의 편리성 ①⑪	<u></u>
	[방과 후 교육 기회]	학생들이 방과후에도 좋은 교육(학교 방과후교육, 사교육)을 받을 수 있다.	<u> </u>
	[평생학습 기회]	어른들이 배울 수 있는(평생학습) 기회가 충분하다.	<u> </u>
	[지역사회 연계 통한 교육]	학교와 지역사회가 연계하여 활발한 교육활동이 이뤄진다.	<u> </u>
정주 생활 기반	[주택 상태]	내가 거주하는 주택은 ① 규모가 적당하다. ② 부엌, 화장실, 목욕시설, 난방시설 등 의 설비가 잘 갖추어져 있다. ③ 지붕, 벽, 바닥 등의 상태가 낙후되지 않고 양호하다. ④ 통풍, 단열이 잘 되고 화재 위험에서 안전하다. ①⑩	060
	[생활 인프라]	도시가스·상·하수도, 도로, 쓰레기 처리 등 기초 생활인프라가 양호하다.	<u> </u>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않다 그렇다
	[생활 서비스]	생필품 구입, 목욕탕, 아미용실 등 생활서비스 이용이 편리하다.	<u> </u>
	[대중교통]	버스, 택시 등 대중교통 이용이 편리하다.	<u> </u>
	[통신 시설]	인터넷, IPTV, 모바일 통신 등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다.	<u> </u>
	[공동체 활동]	주민들이 마을문제 해결과 마을 발전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	<u> </u>
	[소득기회]	지역에서 적절한 소득 기회(일자리 및 일거리)를 구할 수 있다.	<u> </u>
경제 활동 · 일자 리	[경제여건 향상]	최근 3년간을 볼 때, 지역의 경제활동 여건이 전반적으로 좋아졌다.	<u> </u>
	[농외소득] 〈농촌지역만 설문〉	농산물 가공판매, 농촌 체험 및 관광, 농가 식당 및 레스토랑 등과 같이 농업과 농촌 자원을 활용한 소득 기회가 만들어지고 있다.	<u> </u>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일자리 알선, 역량 강화 교육(직업 교육 및 훈련) 프로그램 등 구직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0510
	[청년 일자리 지원]	우리 지역에서 청년들에 대한 구직활동 지원, 일자리 지원, 정착 지원 등이 잘 이루어지고 있다.	<u> </u>
문화 · 여가	[여가시설]	도서관미술관문예회관 등 문화여가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u> </u>
	[여가프로그램]	문화체육강좌, 공연·영화 등 다양한 문화여가프로그램이 마련되어 있다.	<u> </u>
	[향토문화 향유]	지역축제나 문화여가 프로그램을 통해 지역의 향토문화를 접할 수 있다.	<u> </u>
	[문화 공동체 활동]	동아리, 소모임 등 지역주민들이 문화공동체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u> </u>
환경 · 경관	[정돈된 환경경관]	주변 환경이 깨끗하게 관리되고, 경관이 아름답게 잘 정돈되어 있다.	<u> </u>

부문		설문 문항	그렇지
	[에너지 비용 절감]	지역의 에너지정책 노력으로 주거나 생업과 관련한 에너지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	<u> </u>
	[적은 환경오염]	쓰레가분뇨·폐수·매연·악취 등의 환경오염이 적다.	<u> </u>
	[범죄 안전]	절도, 강도 등 범죄로부터 안전하다.	<u> </u>
	[교통 안전]	교통사고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u> </u>
안전	[자연재해 안전]	홍수, 산사태 등 자연재해 위험으로부터 안전하다.	<u> </u>
	[화재 발생 대응]	소방서 등 화재 발생에 따른 대응 시설이 가까운 거리 내에 잘 구비되어 있다.	(i)(5)(ii)
	[안전시설 및 설비]	우범지역 및 사고위험 지역에 CCTV 등의 안전시설과 설비가 잘 구축되어 있다.	<u> </u>
	[농작업 안전] 〈농업종사자만 조사〉	농기계 등으로 인한 농작업 재해 및 사고로부터 안전한 작업환경을 가지고 있다.	<u> </u>
지역 사회	[지역사회 활동]	주민들 사이에 교류나 친목 활동이 활발하다.	<u> </u>

Q06. 다음의 정책부문 중에서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시 는 정도에 따라 **1위부터 3위까지만** 골라주십시오.

설문 문항	순위
[보건복지] 적절한 수준의 보건복지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보건복지 여건	()위
[교육] 아이들, 어른들이 필요한 것을 배울 수 있는 교육 여건	()위
[정주생활기반] 쾌적하고 편리한 주거 및 생활환경 여건	()위
[경제활동일자리] 적절한 소득기회를 찾을 수 있는 경제활동 여건	()위
[문화여가] 적절한 수준의 문화여가생활을 누릴 수 있는 문화여가 여건	()위
[환경·경관] 깨끗하고 아름답게 정돈된 환경·경관 여건	()위
[안전] 범죄, 교통사고, 자연재해에서 안전하게 살 수 있는 생활안전 여건	()위

Q07. 향후에 여건이 된다면 **다른 곳으로 이사할 생각**이 있으십니까? ()

① 있다 ☞ Q07-1번 문항으로 ② 없다 ☞ Q08번 문항으로

(Q07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07-1,Q07-2)

Q07-1. **어디로 이사하고** 싶으십니까? ()

- ① 도시로
- ② 다른 시·군의 농촌으로
- ③ 현재 시·군 안에서 읍·면소재지(중심지) 또는 동으로
- ④ 현재 시·군 안에서 다른 농촌마을로

Q07-2. **말씀하신 곳으로 이사하고 싶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어려워하면 [보기] 제시

[보기]		
	① 생필품 구입이나 목욕탕, 미용실 등 기초적인 생활서비스를 이용하기 힘들다	
	② 도시가스, 상하수도 등 생활인프라가 좋지 않다	
정주생활기반	③ 교통이 불편하다	
	④ 주택이 살기 불편하다(주택의 노후·불량 등)	
	⑤ 난방비가 많이 든다	
경제활동	⑥ 도시에서 더 나은 소득기회를 찾기 위해(구직, 창업 등) /농촌에서는 생계를 꾸리기 어렵다	
지역사회	⑦ 이웃 등 주변 사람들과 관계가 좋지 않아서	
70	⑧ 자녀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교육	⑨ 평생교육 환경이 좋지 않다	
환경·경관	⑩ 쓰레기, 환경오염 등으로 인해 주변 환경이 좋지 않다	
보건·의료	⑪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좋지 않다	
복지	⑫ (영유아이동, 노약자, 장애인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적절한 복지서비스가 부족하다	
문화여가	⑬ 체육활동, 문화여가생활을 할 수 있는 여건이 좋지 않다	
안전	⑭ 홍수산사태 등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가 있다	
	ⓑ 강도·절도 등 치안이 불안하다	
그 외	16 가족-직장 등과 관련된 사유로 인한 이사(개인 희망이 아닌)	
	⑰ 마을에 (교류하고 지낼 만한) 사람이 너무 없어서	

Q08. 선생님께서는 귀농·귀촌하셨습니까? ()

① 그렇다 *☞ Q08-1번 문항으로* ② 아니다 *☞ Q09번 문항으로*

(Q08번 문항에서 ①에 답한 경우만)

Q08-1. 귀농하셨습니까? 아니면 귀촌하셨습니까?

① 귀농 ② 귀촌

Q08-2. 귀농·귀촌하신지 얼마나 되셨습니까? ()년 ()개월
Q9. 선생님은 지역사회 활동(행사·모임 등)에 얼마나 참여 하십니까? ()
① 전혀 참여 안 한다 ② 잘 참여하지 않는 편이다
③ 비교적 참여하는 편이다 ④ 꽤 적극적으로 참여한다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0. 선생님 댁의 <u>주택 형태</u> 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단독주택 ② 다가구주택(연립/빌라) ③ 아파트
④ 비거주용 건물 ⑤ 기타()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Q11. 선생님 댁의 주택 거주(점유)형태 는 어떻게 되십니까? ()
① 자가 ② 전·월세 ③ 무상
④7 E∤(
⑤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 개인 및 가구 관련 질문입니다.
DQ01. 선생님께서는 결혼하셨습니까? ()
① 기혼 ② 미혼
DQ02. 선생님의 최근의 건강상태 가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좋다 ② 양호한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약간 좋지 않다 ⑤ 상당히 좋지 않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3. 선생님 댁의 최근의 <u>가정생활</u> 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① 상당히 만족한다 ② 만족하는 편이다 ③ 보통이다

	④ 불만족스러운 편이다 ⑤ 상당히 불만족한다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DQ04.	선생님의 <u>학력</u> 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무학 ② 초등학교 졸업~중학교 졸업
	③ 고등학교 졸업(중퇴 포함) ④ 대학교 졸업(중퇴 포함)
	⑤ 대학원 이상 ⑥ (불러주지 말 것) 모름/무응답
	현재 선생님은 <u>어떤 일(직업)</u> 을 하십니까? 여러 일을 하신다면 가장 소득이 높은 것 을 답해주십시오.
(1	① 농업/임업/어업 ② 자영업 ③ 사무·관리직(관공서, 회사 등)
	④ 생산/기능/노무직 ⑤ 주부 ⑥ 학생 ⑦ 퇴직 ⑧ 무직
	9 기타()
	9 71-1(/
DQ06.	선생님 댁(본인 포함)에 농축산업·어업·임업에 종사하는 분 이 계십니까?
	(※ 텃밭 등 취미농 제외)
	① 있다 ② 없다
DQ07.	선생님 댁의 가족 구성은 어떻게 되십니까? ()
	① 독신가구 <i>☞ DQ08 문항으로</i>
	② 1세대 가구(부부) <u>☞ DQ08 문항으로</u>
	③ 2세대 가구(부부+자녀) <u>☞ DQ07-1번 문항으로</u>
	④ 3세대 가구(조부모+부부+자녀) <u>PDQ07-1번 문항으로</u>
	⑤ 조손가구(조부모+손자녀) <u>☞ DQ07-1번 문항으로</u>
	⑥ 기타 () <i>☞ DQ07-1번 문항으로</i>

(DQ07 문항에서 ③~6에 답한 경우만)				
DQ07-1. 귀 댁에는 <u>성인이 아닌(</u>	1~19세) 자녀나 손자녀 가 있습니까? ()			
① 없다 <u>☞ DQ08번 문항으로</u>	② 있다 <u>☞ DQ07-2번 문항으로</u>			
(DQ07-1 문항에서 ②에 답한 경우	² 만)			
DQ07-2. 자녀의 연령대 가 다음 중	등 어디에 해당됩니까? () (※ 복수응답 가능)			
① 영유아 ② 초등학생 ③	중·고등학생 ④ 기타()			
DQ08. 선생님 <u>댁의 연간 소득</u> 은 어떻게 되십니까? 모든 가구원의 근로·사업소득, 재산소득,				
기타소득 등을 모두 합한 경	전체 소득 규모를 말씀해 주세요.()			
※ 개방형으로 질문 후 조사원이	해당 번호에 표시, 응답하기 곤란해 하면 보기 제시			
① 1000만원 미만	② 1000만원~1999만원 ③ 2000만원~2999만원			
④ 3000만원~3999만원	⑤ 4000만원 이상			

♣ 조사에 응해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립니다. ♣

참고문헌

- 송미령, 김광선, 성주인, 채종현, 최용욱. (2012). 『2012 지역발전지수를 활용한 농어촌 실태 분석과 정책 개선방안 연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송미령, 채종현. (2013).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심재헌, 노승철, 권인혜, 한태녕. (2014).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 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헌, 유은영. (2015).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정도채, 심재헌, 유은영. (2016).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농어촌의 삶의 질 실태와 주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 유은영, 박지숙. (2017).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위원회 전문지원기관 업무위탁: 2017 농어 촌 주민의 정주 만족도』.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국정기획자문위원회. (2017). 『문재인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농촌진흥청. (2015). 『2013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농촌진흥청. (2017). ⁸2017 농어업인 복지실태조사』.

참고 웹사이트

통계청 통계개발원, 국민 삶의 질 지표. https://qol.kostat.go.kr/blife/main.do